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 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

연구책임자: 홍우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김혜민 (통일연구원 연구원)



북한의 핵전략 분석

KINU 연구총서 18-14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저자	홍우택, 박창권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쇄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I S B N	978-89-8479-933-2 93340
가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핵전략 분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 약	9
I. 서론	11
II. 북한 핵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	17
1.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	19
2. 로버츠의 “승리의 핵전략 이론”(nuclear theory of victory)	23
3. 리버 및 프레스의 강압적 핵 확산전략	24
4. 브래큰의 경보 즉시 보복 전략 및 자살전략	26
5. 베넷의 평시 및 위기시 강압전략	28
6. 약소국 핵전략 이론들의 공통점	29
7. 소결	32
III. 러시아·파키스탄 핵전략의 시사점	35
1. 러시아의 핵전략	37
2. 파키스탄의 핵전략	40
3. 소결	43

IV. 북한의 핵전략 형성 요인	45
1. 김정은 정권의 내부 특성	47
2. 안보 및 경제 환경	56
3. 핵미사일 능력	64
4. 소결	75
V. 북한의 핵전략 전망	77
1. 북한의 핵전략 관련 현황	80
2. 북한 핵전략의 정치적 목표	88
3.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주요 쟁점	95
4.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	99
5. 소결	108
VI. 결론	111
참고문헌	116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1

표 차례

〈표 II-1〉 지역 핵강대국의 핵전략 요약	20
〈표 IV-1〉 북한의 핵실험 결과	65
〈표 IV-2〉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68
〈표 V-1〉 북한의 핵전략과 핵무기 운용옵션	103

그림 차례

〈그림 IV-1〉 남북 간 경제성장을 추이 60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추정하고 이를 점검했다. 북한의 핵전략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약소국의 핵전략을 다룬 이론들, 북한의 통치이념 및 국가전략, 군사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절대적 능력, 핵전략 관련 북한의 발언 및 법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과 진행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고 북한이 어떠한 핵 운용전략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즉 북한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핵 운용옵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작전 범위와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운용전략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차기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주제어: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군사전략, 비대칭 확산핵전략

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ong, Woo-Taek · Park, Chang-Kwoun

This study estimates and examines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o estimat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ories regarding nuclear strategies of small and weak countries and North Korea's guiding ideology, national and military strategy, the absolute capability of its nuclear missiles and its statement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nuclear strategy. Based on this, the curren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alks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to examine possible strategies for nuclear use and options that North Korea could choose. In other words, this study examines strategies for nuclear use that North Korea could possibly prefer.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and possibilities of North Korea's military operations. However, even if North Korea has devised a strategy for nuclear use, whether it is capable of executing the strategy remains as a separate topic that requires further research.

Keywords: Nuclear Strategy of NK, Military Strategy of NK,
Asymmetric Escalation



I

서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래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남북 정상은 두 차례나 회담을 가졌고, 9월 19일에는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5조 3항을 보면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쓰여 있다. 그토록 바라왔던 북한의 비핵화가 눈앞에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장애물도 있고, 우여곡절도 겪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간과할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 며칠 전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논평에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다. 그들의 이유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막기 위함이었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력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핵무기보다 위협이 덜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어떤 무기라도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명확하게 쓰임새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방어를 위해선 공격이 필요하고 또 공격하기 위해선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도 마찬가지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핵무기는 방어용도 공격용도 될 수 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핵무기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그것 하나로 만족할 만큼 북

1) “당치않은 신뢰타령으로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8.9.15.

한이 어리석지는 않다. 계획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었고, 사용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실전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 계획이 북한의 핵전략 혹은 핵태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추정하여 짐작할 뿐이다. 어느 국가건 자신의 군사전략 내지 핵전략을 세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외부세계와 소통이 단절된 북한과 같은 국가는 핵전략을 비롯한 자신의 군사전략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매우 제한된 정보를 꿰어 맞춰 논리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제한된 정보는 북한이 발표한 선언, 언론에 공개한 핵위협 등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핵전략과 핵전략이론 등을 북한의 핵전략을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핵전략을 추정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원 내지 근거는 많다. 북한의 발언을 토대로 그들의 핵전략을 추정할 수 있고, 또 핵전략이론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며, 북한과 유사한 국가의 핵전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정방법들을 서로 연결하여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전략을 토대로 핵전략을 추정하면 당연히 북한의 핵전략은 공세적이고 공격적이며 선제공격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알려진 북한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핵전략을 공세적이라고 추정하고, 이를 다시 이론연구에 접목하는 것을 모색하면 공세적 전략이론에만 발을 담그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각각의 장들을 서로 독립적인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연결 맥락을 유지하려 했지만, 각각의 장은 서로 다른 정보원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추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각각의 장별로 이끌어낸 결론을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소결부분에 정리했다.

우선 II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 연구들과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약소국의 핵전략은 기존 강대국의 핵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약소국의 핵전략은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를 소결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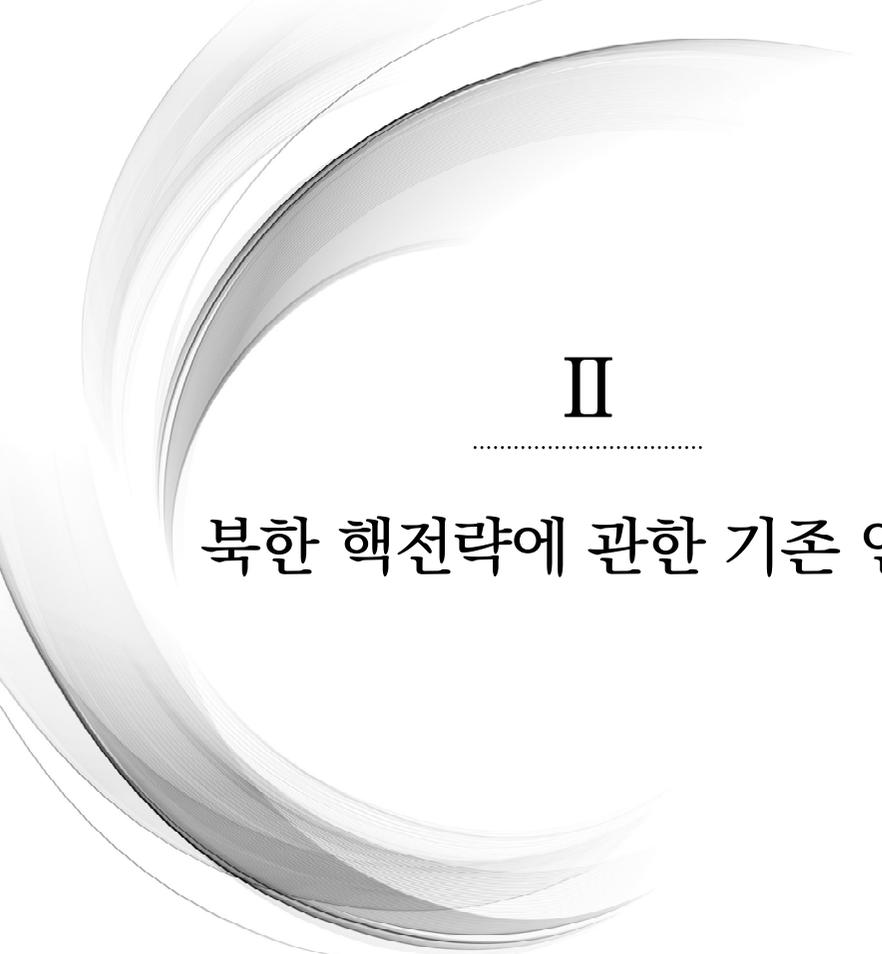
III장에서는 파키스탄과 러시아의 핵전략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살펴보았다. 파키스탄 사례를 살펴본 이유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상황이 북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자신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인도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능력을 키웠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전력은 북한 자신보다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한미 연합전력을 대응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상황과 북한 자신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핵무기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어쩌면 핵전략도 전수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러시아의 핵전략도 살펴보았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능력을 발전시켰으며, 러시아의 군사교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핵군사교리도 북한의 핵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략 구상에 영향을 미쳤을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요인은 김정은 정권의 특성, 안보경제적 환경, 핵·미사일 능력이다. 다시 말해 정권의 성격, 환경, 능력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정권의 특성 부분에서는 통치이념, 국가전략, 그리고 핵관련 북한의 발언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핵관련 법제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핵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안보경제 환경 부분에서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중국과의 관계, 경제기술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였다. 그리고 핵·미사일 능력 부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V장에서는 북한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전략과 옵션을 평가했다. 1절에서는 북한이 여태껏 언급한 핵전략 관련 발언들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핵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분석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보유 상황을 몇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정치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핵무기 운용전략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들을 점검했다. 4절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서는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능력을 기반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전략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다. 본 연구의 의미는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들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구상한 전략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기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II

북한 핵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약소국의 핵전략을 다룬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본 장의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장들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이론을 살펴보고, 그들 주장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주장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1.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²⁾

나랑은 핵태세 최적화 이론(Nuclear Posture Optimization Theory)을 통해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을 분석했다. 대체적으로 나랑의 이론은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 및 억제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나랑의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랑은 핵전략을 촉매적 핵전략(catalytic posture), 확증보복 핵전략(assured posture), 비대칭 확산 핵전략(asymmetric escalation postur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촉매적 핵전략은 한 국가가 제3국을 자신의 분쟁에 개입하게 만들어 억지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면, 제3국은 핵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상황이다. 간접적 방법을 통한 억지 전략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촉매적 핵전략이 간접적 억지전략이라면 확증보복 핵전략은 직접적인 억지전략이다. 직접적인 핵보복 공격 위협으로 적국의 공격을

2)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 1~341.

억지하는 전략이다. 비록 공격을 받은 즉시 보복공격을 할 수는 없더라도 2차 보복 공격을 위한 핵무기의 생존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의 생존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하게 된다. 핵무기를 분산배치하고, 숨기며, 속이는 방법으로 생존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생존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비대칭 확전 핵전략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바로 보복 공격하겠다는 위협으로 적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이다.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핵무기 사용은 현장지휘관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서 비대칭 확전 전략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신뢰성 확보방안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수시로 내비쳐 적국이 나의 협박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요약하면 비대칭 확전 핵전략은 적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 신속한 비대칭적 확전과 선제 핵공격 전략을 통해 적의 군사공격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전략이다. <표 II-1>은 지역 핵강대국의 핵전략을 유형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I-1> 지역 핵강대국의 핵전략 요약

	축매적 태세	확증보복 태세	비대칭적 확전 태세
핵 운용의 우선순위	보호국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핵능력 공개 및 과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핵 보복	거부적 임무로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핵능력	소규모 핵무기 집결능력	생존성 있는 제2격능력	선제사용 능력
지휘통제 체제	이완된 상태, 불투명	통제형 정치 통제	위임(재래식 군사력 및 교리에 통합하여 자산 및 권한을 관리)
투명성 수준	능력과 배치상태 모두 모호	확실한 능력, 배치상태 모호	능력과 배치상태 모두 명확

	축매적 태세	확증보복 태세	비대칭적 확산 태세
경험적 사례	이스라엘(1987~1990), 남아프리카(1979~1991), 파키스탄(1986~1997)	중국(1964~현재), 인도(1974~현재) 이스라엘(1990~현재)	프랑스(1960~현재) 파키스탄(1998~현재)

출처: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22.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고려하여 북한은 비대칭 확산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나랑은 판단했다. 또한 나랑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나랑은 자신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자신의 핵능력이 무력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았다.

만일 나랑의 판단이 맞다면 북한은 괌과 일본의 미군기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 자신의 군대가 파괴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판단이 서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공격하는 데 따른 위험도 무릅쓰는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나랑은 보았다.³⁾

이렇게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이 비대칭 확산 전략이라고 하면 평시에 북한은 핵무기 지휘통제 체제를 소극적인 통제로 유지하겠지만, 위기 및 전시에는 적극적인 지휘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즉 나

3)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ume 38, Issue 1 (Spring 2015), pp. 73~91; Vipin Narang, "Why Kim Jong Un wouldn't be irrational to use a nuclear bomb first,"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8 (2017), <www.washingtonpost.com/outlook> (Accessed November 12, 2018).

량은 북한이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지휘통제를 만들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및 전쟁 시기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부대 지휘관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하여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나랑은 판단했다.⁴⁾

예를 든다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결합하여 운용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같은 경우, 연안에서 작전을 실시하는 가운데 확실한 제2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에는 중앙에서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잠수함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조기에 핵무기를 발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위기 시에 핵무기 발사권한은 위임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평시의 소극적 통제(negative control)는 김정은의 명령이 없을 경우, 핵무기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앙통제 및 적극적인 군에 대한 통제장치와 절차를 마련하는 체제이다. 예를 들면, 핵무기의 조립과 발사를 위해 여러 사람의 동시 행동과 협조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위기 및 전쟁 시의 적극적 통제(positive control)는 핵 운용 부대의 심리적 압박과 조작실수, 참수작전, 한미의 공격에 따른 지휘통제 체제의 마비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시 핵무기를 조기에 확실하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이다. Vipin Narang and Panda Ankit,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What a Nuclear Launch Might Look Like," *War On Rocks*, September 15, 2017. <<https://warontherocks.com/2017/09/command-and-control-in-north-korea-what-a-nuclear-launch-might-look-like/>> (Accessed November 12, 2018).

2. 로버츠의 “승리의 핵전략 이론(nuclear theory of victory)”⁵⁾

로버츠는 자신의 이론에서 북한은 평시, 국지전, 전면전 모든 경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평시에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미를 압박하여 양보를 강요할 것으로 보았고, 핵무기로 인해 만들어지는 전략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북한은 보다 빈번히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도 보았다. 만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하고, 군사분쟁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 되면 북한은 도발을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로버츠는 보았다. 또한 그는 김정운을 제거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공격을 막기 위해 아마겟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협의 도구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았다.⁶⁾ 북한은 승리하기 위해서 국지전에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과 공갈(blackmail)을 사용할 것이며, 미국의 핵대응은 촉발시키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한적 핵사용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보았다.

특히 로버츠는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분쟁에서 자신의 핵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았다. 로버츠가 말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색지대 분쟁으로 천안함 공격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둘째는 적색지대 분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활용하는 실질적 전투작전과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분쟁이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핵을 사용하게 만드는 문

5) Robert Brad,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60~69.

6)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후의 결전을 상징한다.

턱보다는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백색 및 흑색지대 분쟁은 미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이 행해지는 분쟁을 일컫는다.⁷⁾

로버츠는 자신의 이론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북한이 가장 빈번히 사용할 전략으로 꼽았다. 그리고 회색지대 도발은 적색지대 혹은 백색지대 도발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재래식 혹은 사이버 공격을 하는 와중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핵능력을 활용하는 적색지대 도발로 전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일 적색지대 도발을 통해 원하는 목표나 이익 혹은 정치적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북한이 제한적 핵공격을 통해 만회를 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로버츠는 판단했다. 심지어 회색지대 및 적색지대 도발이 모두 실패할 경우 북한은 미국 본토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을 결심하는 단계로 확전을 시도할 수 있다고 로버츠는 평가한다.⁸⁾

3. 리버 및 프레스의 강압적 핵 확장전략⁹⁾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쓴다. 강압적 핵 확장전략 이론에서는 중소 핵보유국은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핵무기를 활용한다고 보았다.

7) Robert Brad,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pp. 74~79.

8) *Ibid.*

9)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Preventing Escalation During Conventional Wars," *United States, Naval Postgraduate School, Project on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for Conquering WMD(PASCC)*, Report No. 2015-XXX, February 2015 (2015), pp. 17~18.

이 이론은 중소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교착시키거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보았다. 또한 강압적 핵 확산전략 이론은 핵무기가 약소국에게 강자를 억제하고 전쟁에서는 강자와의 교착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며, 나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고 보았다.¹⁰⁾

이들에 의하면 약소국은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핵 확산전략을 선택한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을 아는 약소국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전쟁을 생사의 문제로 여기고 대응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수월하게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핵무기의 폭발력을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약소국의 핵사용 위협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약소국도 핵사용 위협으로 강압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¹¹⁾

이들 주장에 의하면 북한과 같은 약소국들의 핵무기도 전쟁을 교착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도 군사적으로 우세한 미국을 상대로 강압적 확산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약소국을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응징적 핵보복, 재래식 군사대응, 북한 핵표적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 그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종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강대국이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 옵션들이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10) *Ibid.*, pp. 6~8.

11) *Ibid.*, pp. 11~16.

12) *Ibid.*, pp. 17~25.

4. 브래큰의 정보 즉시 보복 전략 및 자살전략¹³⁾

브래큰은 지역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시대를 2차 핵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소 핵대결이 중심이었던 제1핵시대의 핵전략과 제2핵시대의 핵전략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다수의 국가가 핵게임에 참여하는 제2핵시대에서는 핵무기 사용 여부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따르기보다는 민족주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열정, 증오심, 히스테리, 대중 여론, 길거리 정치 등과 같은 요인이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책결정자는 위기를 확대시키기 위해 핵테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2핵시대의 국가들은 손쉽게 핵기술과 핵전략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빠르게 핵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어렵지 않게 핵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약소국들은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하고 운용한다고 브래큰은 생각했다.¹⁴⁾

브래큰은 제1핵시대의 핵전략 교훈을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¹⁵⁾ 첫째, 비록 제1핵시대의 국가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평시 및 위기 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수시로 하였으며, 정책결정을 하는 데 이러한 위협을 반영하였다.

둘째, 핵게임에서 적과 동맹국들을 움직이기 위해 선제공격은 말로 한 다음, 이들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요구한다.

셋째, 제1핵시대에는 상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13) Paul Bracken, *The Second Nuclear Age: Strategy, Danger, and the New Power Polit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12).

14) *Ibid.*, pp. 93~126.

15) *Ibid.*, pp. 59~90.

‘핵 두뇌 게임’이 상시 존재하였다. 제2의 핵시대에도 이러한 ‘핵 두뇌 게임’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제2핵시대의 문화나 지도자들의 개성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1핵시대 핵 두뇌 게임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역제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제를 당하는 개인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지도자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특성과 지도자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한다.

다섯째, 핵무기 운용에 대한 결정권한과 이를 실제로 통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을 지도자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핵무기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는 국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위기가 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실제 핵위기에 대한 대비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워 게임 등을 통해 준비하는 실정이다.

일곱째, 역동적인 기술발전은 전략발전의 속도를 뛰어 넘고 있다. 이는 전략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통상적인 관념을 벗어나고 있다.

여덟째,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기 핵전략가들은 소련의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핵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러한 전략을 적용한 핵게임 Proud Prophet를 실행해본 결과, 앞서 제시된 핵전략은 지도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재래식 대응전략과 능력을 발전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시기 미국은 ‘경보 즉시 보복(launch on warning)’ 능력을 시험하고 승인하였다. 이는 소련의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보복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응징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에 보복 행동을 취하는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발적인 사고 및 결정으로 핵전쟁을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브래큰은 북한이 ‘경보 즉시 보복’ 전략과 자신의 취약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벼랑 끝 전략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비록 북한의 탐지 능력은 떨어지지만 ‘경보 즉시 보복’ 태세를 공포함으로 인해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

또한 브래큰은 북한이 상호 공멸을 위협하는 인질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여, 한국과 미국이 자신을 압박하여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위험한 북한의 심리전 게임전략이다. 따라서 그는 한미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북한의 확전전략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⁷⁾

5. 베넷의 평시 및 위기시 강압전략

베넷에 의하면 실패한 정권인 북한은 내부 쿠데타 등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를 내부적으로 강

16) *Ibid.*, pp. 189~191.

17) *Ibid.*, pp. 192~195.

성대국 위상과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극 사용할 것으로 보았다.¹⁸⁾ 동시에 그는 위기 시에 북한은 전쟁 후반보다는 전쟁 초반에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높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으로 자신의 핵무기가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베넷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첫째,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미군의 후방 비행장이나 항구를 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EMP 폭탄(Electro-Magnetic Pulse, 전자폭탄)을 사용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전쟁에서 한미의 대응공세를 멈추도록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베넷은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황은 자신이 붕괴위험에 직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⁹⁾

6. 약소국 핵전략 이론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살펴본 약소국의 핵전략 이론과 주장들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역사적인 핵전략 사례, 새로운 이론적 논증, 북한의 안보여건과 지도부의 발언 내용 등 다양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18) Bruce W. Bennett,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Threat* (RAND corporation, 2010), pp. 23~42.

19) *Ibid.*, pp. 23~42.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앞의 연구들의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약자의 무기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브래큰은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자신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핵무기의 파괴적인 특성 탓에 약소국인 북한의 핵무기도 강대국인 미국의 군사옵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앞의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국지전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확전전략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강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약소국은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핵무기의 생존성을 높이려 하였고, 생존성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핵무기 운용전략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사실 한미의 원거리 정밀유도무기체계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핵능력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응징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SLBM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핵능력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넷째, 앞의 연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전쟁 초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북한은 EMP 폭탄과 저강도 핵무기 등을 활용한 제한적 핵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MP 폭탄은 전자장비를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의 C3(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로 운용될 수 있다. 또한 EMP 폭탄은 한국의 주요 도시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후방지역 비행장과 항만도 표적이 될 수 있다. EMP 폭탄은 동맹을 분리시키고 일본을 압박하여 미군의 군사지원을 차단하고 방해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²⁰⁾

다섯째, 앞의 연구들은 전쟁 초기는 아닐지라도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평양으로 접근 시 핵응징 전략으로 대응하여 한미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상황을 교착시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확장통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략은 케네디 정부 시절 맥나마라(Robert McNamara) 국방장관이 제시한 전략개념으로 상대방의 확장 동기를 통제하는 전략이다. 즉, 자신이 보유한 핵능력으로 추가 핵공격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상대방의 확전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안이다. 앞의 연구들은 북한도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섯째, 북한은 우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앞의 연구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미의 압도적 군사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기습공격 및 참수작전 등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으로 하여금 오인과 오판을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지휘부, 주요 군사시설을 신속히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북한과 같은 약자로 하여금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만든다고 본다.

20) 동맹분리전략은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억제 및 방위체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저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한반도 군사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본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국 자신이 한국전 개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접근방식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 또는 공격 위협,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및 핵위협 방식이 있다.

7. 소결

과거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억제를 다룬 이론들은 강대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보복이 두려워 선불리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이 그랬다. 미국과 소련 어느 국가도 상대방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못했다. 냉전은 열전으로 번지지 않았고 냉전으로 남았다.

물론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하겠다고 서로를 위협했다. 때로는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핵전쟁 직전까지 간 대표 사례다. 그러나 직전까지만 갔다. 양 국가는 모두 핵전쟁으로 초래될 결과를 두려워했다.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만 그 위협은 상대방의 사용을 막겠다는 위협이었다. 그래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본 장에서 살핀 약소국의 핵전략을 다룬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약소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약소국이 예전 강대국과는 달리 핵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 강대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위협만 했지 실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핵무기가 지역 국가까지 확산된 현 시대에 핵무기를 가진 약소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협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핵무기를 전장에 투입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심지어 베넷은 북한과 같은 국가는 전쟁 후반보다는 전쟁 초반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70%이상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행어나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 자신의 핵무기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이 핵전력 면에서 미국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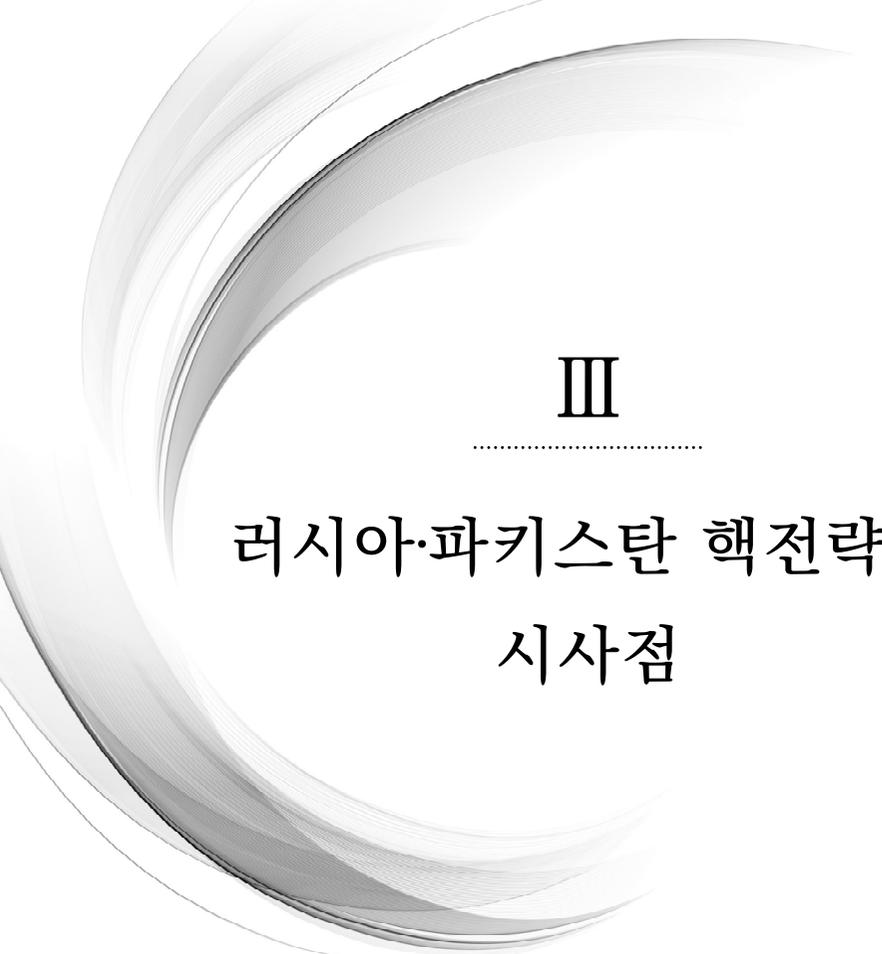
열세인 시절에 선제공격을 못했던 이유는 선제공격을 하면 핵전력이 월등한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자신이 파멸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약소국은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약소국 핵전략 이론가들은 주장한다.

과거 냉전시대의 강대국과 현 시대 약소국의 성격을 다르게 보지 않으면 이들 같이 주장할 수 없다. 제1핵시대와 제2핵시대로 나눈 브래큰은 제1핵시대의 국가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핵사용 여부 정책 결정을 했다면, 제2핵시대의 국가의 정책결정에는 비합리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강대국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반면, 약소국은 민족주의와 같은 감정적 요인이 정책결정을 하게 만든다고 본다.

각각의 국제정치이론은 이론마다 다르게 국가의 성격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 계통의 이론이 국가의 목표를 국력의 극대화 혹은 안보의 극대화로 보는 반면, 자유주의 계통의 이론은 부의 극대화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론에서 국가는 국력도 추구하고 부도 추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나의 이론에서 국가의 성격을 하나 이상으로 가정하면 세상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반증가능하지 못한 주장이 되어 버린다.

과거 강대국들의 억지를 다룬 이론들은 핵전쟁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느 강대국도 핵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핵전쟁이 없었다. 지역 강대국 그리고 약소국으로까지 핵무기가 확산된 현재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소국의 핵전략을 다룬 이론들은 현재 약소국들에 의한 핵전쟁이 없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약

소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도 없을뿐더러 그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선전용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Ⅲ

러시아·파키스탄 핵전략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러시아와 파키스탄의 핵전략을 살펴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이 러시아나 파키스탄으로부터 핵전략을 배웠는지는 확실치 않다. 단지 기술을 가르쳐 준 그들이 혹시나 전략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만일 추정이 맞는다면 러시아와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러시아의 핵전략

북한은 소련의 지원과 협력 하에 핵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소련과 북한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소련은 지질연구,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장소 설정, IRT-2000 영변 시험용 원자로 및 관련시설 건설, 전문가들의 교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였으며, 핵연료도 제공하였다. 1985년 양국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경제 및 기술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 이후 소련은 북한 원자로의 디자인, 건설, 운용을 지원하였다.²¹⁾

1950년대 후반 소련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때, 북한은 소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렇듯 북한과 소련은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협력을 해왔다. 자연스럽게 북한은 소련의 군사교리와 핵전략을 접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상했을 것이다.

1969년 소련이 북한에 Frog 로켓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

21) Alexander Zhebin, "A Polit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in James Moltz Clay and Alexandre Y. Mansour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1), pp. 15~20.

발도 시작되었다. 1978~1981년 사이 북한은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R-17E 스커드-B 미사일과 이동용 발사대를 들여와 이를 다시 역설계하여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북한의 KN-02, 무수단 등은 소련 모델과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1992년 12월 러시아 국가안전부 장관은 의회에서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 64명이 제3국(북한)으로 출발하는 것을 저지했다는 연설을 하였다.²²⁾ 이 사건은 1990년대 초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였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소련의 전략 로켓군을 모델로 1999년 전략 로켓군을 군종으로 창설하였다. 이는 북한군이 많은 부분에서 소련과 러시아의 전략과 교리, 기술들을 흡수했듯이 핵전략에도 러시아의 교리를 많은 부분 상황에 맞게 차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소련의 핵전략은 선제공격과 보복타격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핵무기 운반수단인 전략폭격기와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고, 군사력 건설과 전쟁수행전략 안에 핵무기의 역할을 늘렸다.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베를린 위기 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위협을 하는 일명 ‘핵무기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였다.²³⁾

2000년대 이후 국제적인 위상이 내려앉았던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는 압도적인 첨단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핵능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도

22) *Ibid.*, p. 36.

23) 조동준,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이전 소련과 중국의 핵교리,” 전제성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늘봄: 서울, 2015), pp. 232~251.

노력을 기울였다.²⁴⁾ 2018년 3월 푸틴은 연례연설에서 미국의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²⁵⁾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 핵무기 사용전략을 군사교리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의 핵전쟁이나 지역 내 전쟁으로 확전이 되지 않으면서 미국과 NATO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한적 핵사용 전략은 다양한 강도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위협을 통해 ‘침공의 약화 (de-escalation of aggression)’ 또는 ‘확전을 통한 분쟁완화 (escalate to de-escalate)’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²⁶⁾

이밖에도 러시아의 핵전략은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핵전력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핵사용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덴마크와 폴란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를 자신의 영토에 설치하려고 하자 러시아는 핵사용 위협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크림 반도 사태 당시에 러시아는 자신의 핵전력에 경계태세를 발동하였으며, 나아가 상황이 악화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핵위협 메시지도 전달하였다.

만일 북한이 러시아의 핵전략을 모델로 삼았다면 분명 자신의 핵능력을 핵전략 및 안보태세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을

24) Elbridge Colby, "Russia's Evolving Nuclear Doctrine and its Implication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016), p. 3.

25) "Putin's Invincible Missile is Aimed at U.S. Vulnerabilities," *The New York Times*, March 1, 2018, <<https://www.nytimes.com/2018/03/01/world/europe/russia-putin-speech.html>> (Accessed November 12, 2018).

26) Elbridge Colby, "Russia's Evolving Nuclear Doctrine and its Implications," p. 7.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핵전략을 자신의 핵전략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제한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 전략, 그리고 확전을 통한 분쟁완화 전략은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일지도 모른다. 한국과 미국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했던 전략을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북한은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전략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 핵무기의 상대는 대부분 미국이었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미국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러시아는 항상 가졌다.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북한도 같은 두려움이 있을것이다.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미국을 억지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미국을 억지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

2. 파키스탄의 핵전략

파키스탄의 핵무기 상대는 인도의 핵무기다. 파키스탄은 1986년부터 1998년 핵실험이 성공하기 이전까지 인도와의 분쟁에서 언제나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였다. 1983~1984년 실험실 핵실험을 실시한 파키스탄은 1984년에는 실제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 했고, 파키스탄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겠다고 대응했다. 3년 뒤인 1987년에는 아직 무기화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1987년에 실시한 인도의 대규모 군사훈련(Brasstacks)으로 양국관계에 위기가 발생하자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는 파키스

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기경보기를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원조를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였다. 1990년 카슈미르 위기 시 미국은 또다시 이에 적극 개입하여 위기를 해소시켰다.²⁷⁾

그러나 1998년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국경을 넘어오면 핵무기를 선제사용 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항하고 억지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비대칭적 확산 전략을 채택한 듯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명시적으로 자신의 핵전략을 최소억제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라고 주장한다. 최소억제전략은 위협의 강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전략으로 낮은 목적·중간 목적·높은 목적 세 가지의 단계별 전략을 갖고 있다. 낮은 목적은 전술핵무기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인도의 공세와 인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중간 목적은 위기가 발생하면 인도군이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이다. 높은 목적은 인도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중요 국가기반 구조, 리더십 관련 표적, 도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이다.²⁸⁾

파키스탄은 핵무기 선제사용을 핵작전 교리로 선택하고 있다. 또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핵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02년 파키스탄 전략 계획국 국장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네 가지 상황을 언급했다. 네 가지 상황은 파키스탄 영토의 상당부분이 점령된 경우(공간적 레드라인), 영토나 공군력의 상당부분이 파괴될 경우(군사적 레드라인),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자 시도할 경우(경제적 레드라인), 정치적 불안정을 밀어붙이거나 대규모적인 내부 전복을 시도할 경

27)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p. 55~76.

28) *op. cit.*, pp. 76~93.

우(국내적 불안정 레드라인)이다.²⁹⁾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NATO의 군사교리와 유사한 점진적 대응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단계는 공개적 또는 개별적 경고, 2단계는 자신의 영토에서 소형 핵무기의 시위적 폭발, 3단계는 인도의 공격 군사력에 대해 자신의 영토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사용, 4단계는 국경지역 인도 영토의 중요한 군사표적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핵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육군이 전술핵무기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통제 체제도 만들었다. 핵무기 지휘통제체제에 따르면 육군은 전장지휘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전권한 위임 절차를 구축하고 신속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무기 자산을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³⁰⁾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러시아의 핵전략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핵능력을 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국지적 분쟁일지라도 핵무기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대외적으로는 최소억제전략이 자신의 핵전략이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능력을 정치,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비대칭 확산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비대칭 전략에 무게를 둔 핵무기 운용전략을 위한 지휘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노리는 것은 인도가 자신의 핵전략을 오판하지 않게

29) *op. cit.*, pp. 76~93.

30) *op. cit.*, pp. 76~93.

만들어 인도를 직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이 우월한 인도를 상대로 국지전을 도발하고 군사공격을 해왔다. 파키스탄의 도발에 대응하여 인도는 자신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만 군사작전을 실시하였고, 국경을 넘어가는 보복이나 군사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는 대규모 군사력 시위를 전개했으나 파키스탄의 국지전 도발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파키스탄의 군사 도발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인도의 대응 방식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전략과 국지도발 전략, 그리고 확전에 대한 위협 전략 등을 모방한 전략구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3. 소결

러시아와 파키스탄의 전략적 상황이 지닌 공통점은 자신보다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미국과 나토 그리고 인도를 상대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은 미국과 나토에 비해 열세다. 러시아의 입장에서선 군사력 계산에 핵무기를 넣어야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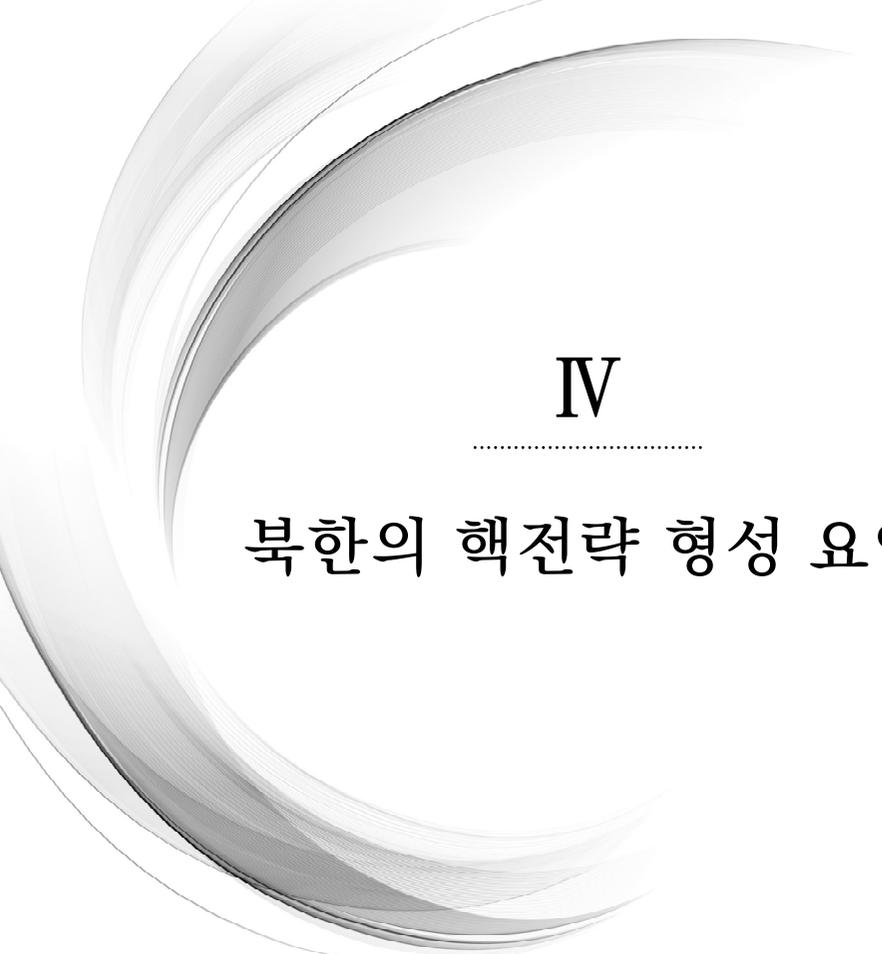
확실한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상대방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적어도 상대방과 엇비슷한 군사력을 가져야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미국과 나토의 재래식 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제한적 핵무기 사용전략을 군사교리에 포함했다.

파키스탄의 상황도 러시아와 비슷하다. 인도의 재래식 전력은 파

키스탄에 비해 우월한 전력이다.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계산에 넣어 야 인도와 엇비슷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핵무기 선제사용을 핵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인도의 전쟁에 재래식으로만 대응하면 인도를 억제할 수 없었지만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도가 재래식 도발을 하더라도 파키스탄은 선제적인 핵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인도가 재래식 도발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또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에 신뢰를 불어넣어야 했다.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인도가 그 협박을 무시하면 억제는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틈틈이 인도를 상대로 국지도발을 하였다. 자신은 위협을 감수하는 행위자라는 것을 인도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이런 방법이 인도로 하여금 파키스탄의 핵위협은 신빙성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수단이었다.

북한의 경우도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한국과 미국을 억지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앞의 두 국가로부터 핵전략을 전수받았다면 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러시아와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한다는 위협은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위협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협을 감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어쩌면 북한의 국지적 도발들은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IV

북한의 핵전략 형성 요인

본 장에서는 북한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북한 핵전략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절에서는 북한의 통치이념, 김정은의 국가전략, 그리고 북한의 군사전략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절에서는 북한이 자신이 처한 안보·경제 환경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고민했을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 절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살펴보았다. 북한이 자신이 절대적인 핵·미사일 능력만으로 핵전략을 구상했는지, 아니면 상대적인 핵능력을 바탕으로 구상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본 절에서는 절대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1. 김정은 정권의 내부 특성

가. 북한의 통치 이념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50년대 중반부터 세상에 드러났고, 70년대에 들어 자리 잡았다. 사상·정치·경제·국방에서 자주와 자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이 자주노선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60년대 중소분쟁의 발발, 북소관계의 악화라는 상황이 있었다. 자주노선은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였던 관계를 벗어나 경제에서는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는 자위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다.

자주노선을 바탕으로 김일성은 국방을 중시하면서도 경제도 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군수공업 위주의 정책과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한 까닭에 원하는 경제발전 달성은 실패하였다.³¹⁾ 더구나 80년대

말 이후 시작된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은 경제발전보다는 안보강화에 치중하였다.

공산권의 붕괴는 김일성의 대남정책도 변화시켰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국가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전략과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대남정책의 핵심은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안보여건도 변화하였다. 북한은 당장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했다.

선군사상은 김정일의 통치이념이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통치이념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전 분야에서 군이 역할을 맡았고, 군은 또 지도자와 체제를 옹호하는 중심기구가 되었다. 선군사상은 군사선행 원칙뿐만 아니라 강성대국 건설도 내세웠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은 국방공업 발전을 통해 만들려 하였다.

김정일은 국가전략으로도 안보강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하려 하였다. 90년대 들어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은 두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강성대국은 군사강국, 경제강국, 사상강국, 그리고 문화강국을 의미한다. 강성대국건설은 김일성 시대의 국가전략을 김정일 시대의 여건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서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구하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지만, 김일성의 자주와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은 큰 차이가 없다.

강성대국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김정일이 내세운 것은 선군정치와

3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11), pp. 76~79.

실리주의였다. 선군정치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 우대정책을 펼쳤다. 선군을 내세워 체제를 지탱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개혁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³²⁾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경제발전까지 하기는 어려웠다. 경제도 군대를 통해 움직이게 만들었기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초에 김정은이 집권했다. 급하게 집권한 까닭에 취약한 정권기반을 강화해야 했다. 기존 엘리트층을 숙청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지배계층을 교체하여 정권기반을 다졌다. 그 결과 3세대 혁명세력 그리고 젊은 엘리트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은 선대의 통치이념과 전략을 기본적으로 답습한 것이다. 2013년 김정은이 발표한 경제·핵 병진노선이 그것이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전략이라는 점에서 선대의 정책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노동신문에서는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는 것이 병진노선이라고 해석한다.³³⁾ 핵능력을 완성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면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핵능력에 대해 “인민군대는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해 나가며 핵무력의 정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⁴⁾ 핵무기를 통해 절약

32) 위의 책, pp. 137~173.

3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4.1.

한 국방비를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대한기간에 안정·향상시키는 것이 병진노선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한다.³⁵⁾

병진노선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내비친다. 북한은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복무하여야 할 막대한 인적·물적 재부가 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돌려졌다.”³⁶⁾ “우리를 군비경쟁에 끌어들이어 어떻게 하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⁷⁾

결국 김정은 시대의 전략도 그리고 그 전략을 둘러싼 외부환경도 선대의 시기와 유사하다. 김정은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김일성 시대에 중공업 및 군수공업 위주의 정책, 그리고 군사비 과다 지출로 경제발전이 실패했던 사례를 전략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면서 경공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국가전략과 현실적인 안보상황 간에도 괴리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핵능력에 바탕을 둔 군사강국을 추구하려는 김정은의 목표는 수정을 해야 한다. 선대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주노선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한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한국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

34) “당중앙위원회의 2013년 3월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13.4.1.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4.1.

36) “당중앙위원회의 2013년 3월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13.4.1.

37) “...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4.2.

을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의 국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첫째, 북한은 핵능력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협상도 타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것이다. 핵능력을 포기하면 자주적인 군사강국 목표도 수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건설에서 효과를 얻으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북한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안정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보다는 대화와 접촉,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달려있다.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만들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은 남북 간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북한은 총예산의 약 30%정도를 국방예산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다보니 국방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은 일반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金正은의 목표가 경제발전이니만큼 군사비에 쏠리는 예산비중을 김정은은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 군사장비와 무기체계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 수준에 맞추려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비 투자를 해야 한다. 만일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군사적 신뢰구축이 형성되면 북한은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대치가 지속되면 북한은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비용확보 그리고 핵능력과 핵

전략의 중요성은 향후 남북관계의 성격에 달려있다.

셋째, 김일성, 김정일 모두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려고 했다.金正은의 목표도 선대와 같다. 어떻게 하면 강성대국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김정은은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선대의 경우 군사력을 강화하여 강성대국을 만들려고 했다. 김정은은 핵능력 강화를 통해 강성대국의 위상을 만들었다.

약소국가가 가진 핵능력은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진 약소국은 특별한 권위와 위상을 누릴 수 있다. 핵이 없었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김정은의 행보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눈에 핵능력이 없는 북한은 가난한 제3세계 독재국가일 뿐이다.

군사적인 면에서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핵무기이다. 만일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인 강성대국 지위를 확보하는 목표를 거둘 수 있다면 핵무기의 중요성은 사라질 것이다. 경제발전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강성대국 위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핵무기도 핵심적인 수단에서 멀어질 수 있다. 군사적 강성대국 위상도 포기할 수 없다면 북한은 핵을 이용하여 경제발전도 도모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보통 국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협력에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 애쓴다. 지금까지 북한 행태의 패턴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도발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북한은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벼랑 끝 전술을 선택했다. 이는 북한이 늘 해오던 협상전략이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는 한, 핵능력은 계속해서 벼랑 끝 전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 군사전략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이라는 군사전략을 갖고 있다. 4대 군사노선은 1962년 당시 당의 군사노선으로 채택되었으며, ‘전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가 핵심 전략개념이다. 4대 군사노선은 한국의 지형 특성을 반영하고 군의 현대화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토를 요새화하였고, 노동 적위대를 중심으로 전 인민을 무장화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특히 4대 군사노선은 북한체제를 병영국가로 만들어 항상 전쟁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핵심 군사노선으로 유지하고 있다.³⁸⁾

실질적인 군사력 운용과 관련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이다. 선제기습공격 전략은 정규군·비정규군을 모두 동원 기습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를 한다는 전략이다. 기습전략은 한국의 수도권이 비무장 지대에 인접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기습전으로 수도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없애는 전략이다. 북한은 기습전략에 유리하게 군사배치도 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의 70% 이상을 평양-원산선 남쪽에 배치하고 있으며, 약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및 300mm 방사포는 일시에 수도권에 대량의 포격을 실시할 수 있는

38)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1호 (2017), pp. 135~143.

능력을 갖추고 있다.³⁹⁾

전후방 배합전은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정규군을 이용하여 전방을 공격하고, 특수부대와 비대칭 전력 그리고 한국 내 지원세력은 후방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은 후방에 있는 항만과 비행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한은 최전선 못지않게 후방지역도 방어해야 한다. 더구나 남한의 핵심 산업시설과 군수산업 시설도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중심이 짧은 산악지형이며, 바다로부터 모든 후방지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후방에 제2전선을 만들기가 용이하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후방을 뚫게 되면 남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속전속결전략은 짧은 시간에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국력의 규모가 남한에 비해 작은 북한은 긴 시간에 걸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특히 미국은 유사시 본토로부터 증원전력을 받기 때문에,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의 승패를 매듭짓는 것이 북한의 입장으로는 최선이다. 만일 북한이 속전속결전략과 기습전략으로 조기에 수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안으로 한미의 전략 선택범위를 좁힐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북한은 기존 자신들의 군사전략에 비대칭 전략을 새롭게 접목시켰다. 강자의 비대칭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비대칭 전략이다. 미국과 같은 강자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기술과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쟁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정보기술과 첨단 정밀타격무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전, 신속결정 작전, 중심마비전 등 미국은 다양한 전쟁수행 방식을 선보였다. 이에 비해 약

3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의 이해』 (서울, 2017), pp. 97~99.

자의 비대칭 전략은 상대의 능력이 아닌 전쟁 수행의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결속력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거나 야만적 방법(barbarism)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전쟁의지를 꺾는 전략이다.⁴⁰⁾

북한은 자신보다 우월한 남한의 군사능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비대칭 능력을 키워왔다. 비대칭 능력의 특성 때문에 한국의 첨단 기술 무기로도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의 탱크가 북한의 탱크보다 첨단기술을 갖추었을 뿐, 한국의 탱크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막을 수는 없다.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그리고 장사정포, 미사일, 잠수함(정), 특수전 능력, 기뢰, 사이버전 능력 등이 북한이 공들여 만든 비대칭 능력이다. 특히 북한은 앞에서 말한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 방법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비대칭 무기의 능력으로 미군의 증원과 지원을 저지하려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군사전략은 북한체제에 깊이 뿌리박힌 전략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개입으로 인해 패배를 했던 한국전쟁 경험과 같은 역사적 요인, 군사분계선에 가까이 있는 서울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혁명전쟁식민지 해방전쟁·조국방위전쟁을 주장하는 이념적 요인들이 결합된 전략인식이다.⁴¹⁾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전략인식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면 북한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방어적인 행동으로 미국의 증원전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런 계기 없이 북한이 공세적인 전략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공세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40) 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Summer 2001), pp. 93~128.

41)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pp. 132~168.

2. 안보 및 경제 환경

가. 동맹국 중국의 안보 보장자로서의 신뢰성 약화

동맹은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관계이다. 동맹국의 군사력은 나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전통적인 북한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여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고, 평시에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비록 북한의 주체사상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방의 자위적 능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러 부분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향후 북중관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 북한은 중국을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동맹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인식은 향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핵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후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확장억지를 제공하였다. 후에 동맹이 되었지만 전쟁당시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고 독자 핵무장을 포기하였다. 반면에 중국과 프랑스는 미소의 확장억지를 믿지 않고 핵무장을 하였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만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이 이를 믿는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동기는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중국과의 연대가 크지 않다면 북한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비해 열세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은 핵능력을 군사 핵심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다.

북중관계에 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에게 북한은 안보적 측면에서 핵심이익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깊

속하게 개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북한과 중국은 중국 내전 및 한국전에서 서로를 지원하여 피를 함께 흘리며 싸웠던 혈맹관계다. 비록 항일투쟁과 한국전에 참여하였던 고위 인사들은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혈맹관계라는 인식이 양국의 저변에 깔려 있다면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중국의 행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북한 내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 내로 진입할 경우 중국은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작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북중관계가 혈맹관계라는 인식이 양국관계에 스며있다면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하는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된다.⁴²⁾

반면에 북중관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각은 양국관계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관계로 본다. 북중관계는 이제 동맹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이 시각의 주장이다. 90년대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로 부르고 있다. 다른 우방국들을 호칭하는 동반자관계와는 차별을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맹을 명시하지도 않는다.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세대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또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감과 이념적 동질성도 약화되었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동참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이다.⁴³⁾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북한을 혈맹으로 보든 정상관계로 보든 중국은 한미동맹의 영향력이 국경

4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p. 164~169, 342~351;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p. 75~86, 337~342.

43) 현성일, 위의 글, pp. 164~169, 342~351; 정재호, 위의 글, pp. 324~342.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이런 전략적 선호도를 미국도 안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⁴⁴⁾ 북한이 미국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행태도 이러한 판단에서 나온다. 이라크나 리비아가 핵개발을 시도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중국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을 유지하려는 것을 알기에 북한은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고위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정부 내에서도 중국을 불신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신 하에서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중국에 의지하는 전략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구하는 북한은 중국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을 믿지 못하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자위적 방위능력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길 것이다.

나. 경제적·기술적 어려움의 심화

한 나라의 군사력은 경제력과 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도 경제력과 기술력에 의해 정해진다. 만일 북한의 경제·기술력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만들 능력에 모자라면 북한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는 적은 경제·기술 비용으로 높은 군사·정치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무기이다.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로 처방을 했으나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과 에너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폐쇄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44) 현성일, 위의 글, pp. 164~169, 342~351; 정재호, 위의 글, pp. 75~86, 337~342.

로 인한 고립 등은 북한의 경제가 활력을 띠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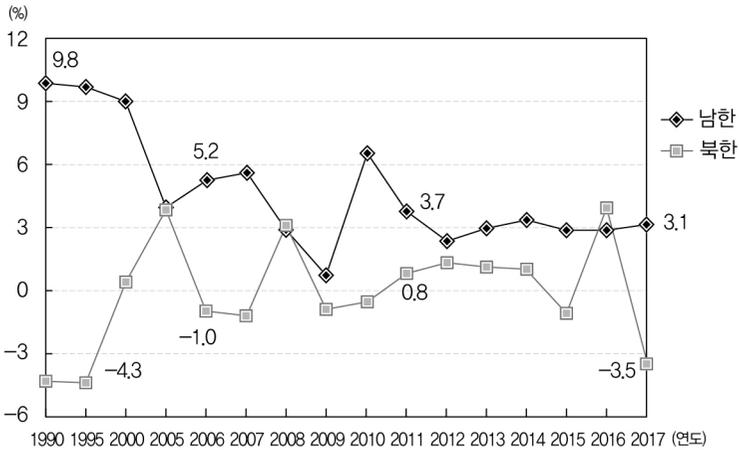
김정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핵개발이 초래한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선대의 중공업 우선발전의 원칙에서 벗어나 경공업 분야를 개척하고 장마당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김정은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명목 국민총소득)은 36조 3,730억 원으로 한국 1,639조 665억 원 대비 1/45의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 원으로 한국의 3,198만 원 대비 1/22 수준이다. 북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2015년 대비 3.9%로 한국의 2.8%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그림 IV-1>에서 보듯이 2015년 경제성장률 -1.1% 등 북한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⁴⁵⁾ 특히,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3.5%로서 감소폭은 1997년 -6.5%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⁴⁶⁾

45)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2017), pp. 17~34.

46) “제재 직격탄 맞은 북한 경제…작년 성장률 -3.5% 20년 만에 최저,” 『중앙일보』, 2018.7.20., <<https://news.joins.com/article/22819180>> (검색일: 2018.11.12.).

〈그림 IV-1〉 남북 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 24.

2017년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주민 5명 중 2명은 영양결핍 상태다.⁴⁷⁾ 2017년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북한 주민 약 1천 300만 명이 영양결핍이라고 평가했다.⁴⁸⁾ 식량생산이 저조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한 영양결핍을 겪는 북한주민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또한 2014년 북한의 원유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8.3%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의 수입량과 동일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원유수입을 못하게 되면서 북한은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 성장률은 2014년 3.6%, 2015년 -17.9%, 2016년 4.5%이다.⁴⁹⁾ 이밖에 다른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북한의 경제가 나아

47) “계속되는 북한식량난 왜? 전문가들 ‘유엔·미국 제재 유탄’ 주목,” 『연합뉴스』, 2018. 6.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31800009.HTML>> (검색일: 2018.11.12.).

4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rld Food Program』, <www1.wfp.org/countries/democratic-people-republid-korea> (Accessed November 12, 2018).

질 기미는 보기 힘들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이며, 경제총량을 감안하면 북한 경제는 일상화된 침체라고 볼 수 있다.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약해진 경제역량, 축소된 원유수입량과 대외교역 때문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김정은이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은 경제 부문에 치중하여 자원을 배분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말하지만 군사비를 현재보다 증액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경제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 또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기술혁명을 통해 군수공업과 중공업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공산권 국가들 간에는 우호적으로 기술협력과 군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전시켰다. 영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과학기술 및 군수공업 분야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의 결과가 핵능력과 기술능력의 발전이다.

김정은도 산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인민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은 평양에 은하과학자거리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조성하였다. 북한은 과학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학중시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은 미사일 생산 공장을 비롯한 군수공장을 현장 지도하고 컴퓨터 수치 제어(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의 자동화와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첨단기술 능력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

49)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 125, 163.

50)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권 0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9.1.), pp. 11~14.

로 뒤쳐진 기술능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총 군사비는 2016년에 116억 달러로, 한국의 336억 달러에 비해 1/3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비는 1980년대 60% 수준에서 최근에는 40%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¹⁾ 김정은은 군수공장의 현대화자동화를 주문하고 훈련혁신을 강조하는 등 북한군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과 한미의 첨단군사력의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와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술협력과 지원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력과 기술력의 격차는 북한의 군사전략 및 핵무기 운용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변화

과거와 다르게 혼풍이 불고 있는 남북 및 북미관계가 북한의 핵전략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판단을 내리긴 아직 선부른 감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2017년 말까지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팽배했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수위 높은 언어폭력까지 주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며 남북 및 북미 간 대립과 갈등으로 얼었던 관계는 급격히 풀어졌다. 계기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이루어졌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월에는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51) 탁성환, “북한 군사비 추계 연구: 2014년-2018년,” 박창권 외 『2017 안보전략 전문과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7), p. 592.

열렸다. 연말 이전에 또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만으로도 한반도의 안보여건은 어지러울 정도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남북미 정상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에 관한 것이다. 2017년에 비하면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비핵화가 앞으로 얼마나 진전된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북한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쌍방이 동시에 행동해야 신뢰가 생길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단계적·순차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⁵²⁾ 이에 반해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의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는 ‘2019 국방수권법’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목을 통과시켜서 트럼프 정부가 임의로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⁵³⁾ 비핵화 진행에 대해 두 국가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까닭에 비핵화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김정은은 핵리스트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은 신뢰가 쌓여야 핵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행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 비핵화 협상은 결과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과거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아닌 하향

52) “폼페이오 ‘북, 리용호, ‘비핵화 약속’ 분명히 해,” 『News1』, 2018.8.6., <<https://www.msn.com/ko-kr/news/world/%ED%8F%BC%ED%8E%98%EC%9D%B4%EC%98%A4-%E5%8C%97-%EB%A6%AC%EC%9A%A9%ED%98%B8-%EB%B9%84%ED%95%B5%ED%99%94-%EC%95%BD%EC%86%8D-%EB%B6%84%EB%AA%85%ED%9E%88-%ED%95%B4/ar-BBLy1RD>> (검색일: 2018.11.12.).

53) Committee on Rules(House of Representatives), “Conference Report to Accompany H.R. 5515: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July 2015. <<https://rules.house.gov/conference-report/-H.R.%205515>> (검색일: 2018.9.23.).

식(top-down)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오히려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김정은 간에 오가는 서신외교는 협상 진행을 멈추지 않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행보에 불만을 드러내지만, 오히려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인터뷰를 하여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결코 나쁜 분위기라고 할 수 없다.

3. 핵·미사일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북한의 핵전략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한 핵심 지표다. 아무리 공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능력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면 전략은 탁상공론이 된다.

핵무기의 숫자가 많을수록 상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도 많아진다. 핵무기의 생존능력은 핵무기의 수량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핵무기 숫자는 운용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숫자가 많을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유연하게 전략을 운용할 수 있다. 핵무기 수량이 적을수록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선택도 줄어든다.

핵무기 운반수단도 핵무기 생존능력뿐만 아니라 전략운용에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운반수단에는 미사일, 항공기, 함정, 잠수함, 포, 특수전 부대 등이 있다. 북한이 다양하게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하면 북한의 위협 강도는 커질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SLBM은 쉽게 찾아내 없애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존능력이 높은 핵무기 운반수단이다. 북한도 잠수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생산 능력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북한은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당시에는 수소탄 시험이라고 발표했으며, 그해 9월 5차 핵실험 때는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한 것은 물론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하여 대량생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트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⁵⁴⁾

〈표 IV-1〉은 시기별 북한 핵실험의 폭발위력을 보여준다. 핵실험 횟수가 거듭될수록 실질적인 핵능력이 갖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소폭탄 능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증폭핵폭탄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1〉 북한의 핵실험 결과

구분	1차 (’06.10.9.)	2차 (’09.5.25.)	3차 (’13.2.12.)	4차 (’16.6.16.)	5차 (’16.9.9.)	6차 (’17.9.3.)
폭발 위력	0.9~1kt	3~4kt	6~7kt	6kt	10kt	50~200kt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플루토늄(Pu) 핵물질 생산능력으로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5MWe 원자로는 통상 2~3년 운용 후 사용 핵연료를 추출하여 Pu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해커박사는 북한이 연간 약 6kg, 매 2년마다 약 12kg의 Pu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⁵⁵⁾

54) “북,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발표,” 『한국일보』, 2017.9.3.,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031662697363>〉 (검색일: 2018.11.12.).

고농축 우라늄(HEU: High-Enriched Uranium) 생산능력은 2010년 11월 해커박사 일행에게 공개하였던 영변에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존 영변시설 옆에 동일한 규모의 농축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영변시설 이외에도 은닉된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강성에 P2형 원심분리기 6,000~12,000개를 갖고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2000년대 중반부터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⁶⁾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북한의 Pu 보유량을 50kg 이상으로 평가한다.⁵⁷⁾ 반면에 Albright 박사는 약 33kg, 그리고 해커 박사는 약 20~40kg으로 평가하고 있다. Pu으로 핵무기 한 기를 생산하는 데 약 2~6kg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5년 맨하탄 프로젝트에 따른 트리니티 핵실험은 6kg의 Pu을 사용하였으며, 기술발전을 고려 시 북한은 핵무기 한 기에 평균 2~5kg의 Pu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커박사는 북한이 Pu 핵무기 4~8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⁸⁾

55) Sigfried S. Hecker, Chaim Braun and Chris Lawrence, "North Korea's Stockpiles of Fissile Material," *Korea Observer*, Vol. 47, No. 4 (Winter 2016), p. 723; Sigfried S. Hecker, "What We Really Know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What We Don't Yet Know for Sure," *Foreign Affairs*, December 4, 2017,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7-12-04/what-we-really-know-about-north-koreas-nuclear-weapons>> (Accessed November 12, 2018).

56) David Albright, "On the Question of Another North Korean Centrifuge Plan and the Suspect Kangsong Plan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May 25, 2018, pp. 1~23, <https://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Kangsong_25May2018_final.pdf> (Accessed November 12, 2018).

57)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 27.

58)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February 26, 2015, p. 4, <<https://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02/NKINF-Future-Directions-2020-Albright-0215.pdf>> (Accessed November 12, 2018).

북한의 HEU 보유량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핵탄두 한 개 생산에 HEU 15~20kg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2016년 말 기준 북한이 보수적인 관점(영변 HEU시설)과 가능성이 높은 관점(영변 HEU시설과 은덕 HEU시설)의 평균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약 175~644kg의 HEU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영변핵시설의 연간 HEU 평균 생산량을 58kg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따른 북한의 HEU 핵무기 보유능력은 보수적 관점에서는 11~30개, 가능성이 높은 관점에서는 25~70개로 평가한다.⁵⁹⁾ 반면에 해커박사는 2017년 말 기준 총 250~500kg의 HEU를 보유하여 12~24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해커박사는 북한이 매년 6~7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총 25~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평가하였다.⁶⁰⁾ 올브라이트 박사는 북한이 2개의 HEU 시설을 운용할 경우, Pu와 HEU 핵무기 보유량을 2017년 말 기준 평균 47개(가능성은 26~80개), 또는 핵물질의 손실분을 감안하면 평균 33개(가능성은 18~57개)로 평가하였다.⁶¹⁾ 미 정보관련 부서는 북한이 약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미사일 능력

북한은 약 1,000기에 달하는 대량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스커드-ER, 화성-12형, 화성-14

59)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April 28, 2017, pp. 1~3. <<http://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north-koreas-nuclear-capabilities-a-fresh-look/10>> (Accessed November 12, 2018).

60) Siegfried S. Hecker, "What WE Really Know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What We Don't Yet Know for Sure."

61) David Albright, "On the Question of Another North Korean Centrifuge Plan and the Suspect Kangsong Plant," pp. 19~21.

형, 화성-15형, 그리고 북극성-2형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화성-12형은 하와이와 괌을, 그리고 화성-14형/15형은 ICBM급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SLBM 능력은 비록 북극성-12형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아직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재 미사일 능력은 한·미를 억제하고 강압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상황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표 IV-2>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던 스커드 B/C/D 미사일을 제외한 최근에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잘 보여준다.⁶²⁾

<표 IV-2>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구분	지정명칭	배치 연도	사정거리 (km)	추진단 (연료)	탑재능력 (kg)	발사대
북극성-3	?	개발 중	?	?(고체)	?	
화성-15	KN-22	개발 중	13,000	2단(액체)	1,000?	TEL
화성-14	KN-20	개발 중	10,400	2단(액체)	?	TEL
화성-13	KN-8	개발 중	5,500+	3단(액체)	?	TEL
화성-12	KN-17	개발 중	3,300-4,500	1단(액체)	1,000	TEL

62)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정거리 120km의 고체연료 추진 Toksa(KN-02), 액체연료 추진의 사정거리 300km의 Scud-B, 사정거리 500km의 Scud-C, 사정거리 700-800km의 Scud-D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량은 Toksa 약 50기, Scud 약 600기, 노동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다. Bruce W. Bennett, "Potential Nuclear Impact on Korean Conflict," Rand Corporation, 한국국방연구원 워크숍 발표, December 2013.

구분	지정명칭	배치 연도	사정거리 (km)	추진단 (연료)	탑재능력 (kg)	발사대
화성-10	무수단, BM-25	2017	3,000+	1단(액체)	1,000	<50 TEL
북극성-2	KN-15	개발 중	1,000+	1단(고체)	?	TEL
화성-7	노동	1993	1,200+	1단(액체)	1,000	<100 TEL
화성-9	Scud ER, KN-4	2016	1,000	1단(액체)	500	TEL
북극성-1	KN-11	개발 중	1,000+	1단(고체)	?	1 SSB

출처: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2018,"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4:1, January 08, 2018, p. 42.

북한은 2017년 5월 화성-12형을 동해상으로 고각발사 후 이를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전략 탄도로켓”로 명명하였다. 이는 새롭게 개발한 3.18형엔진을 장착하여 시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상 발사 시 사정거리 약 4,500~5,000km 비행이 가능하였다.⁶³⁾ 북한은 사정거리 약 3,000km의 중거리 미사일로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 하였으나 2016년 여덟 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하여 여섯 번째 발사를 제외하고는 실패하여 신뢰성에 의심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화성-12형 발사의 성공은 북한이 하와이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은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성-14형을 발사하였고,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을 시험 발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⁶⁴⁾ 화성-14형은 최대사거리를 환산 시 1만 km 이상 비행이 가능하여 미국 서부지역 및 동부지역 일부를 목표

63)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새형의 로켓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7.5.15.

64)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7.7.5.

범위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화성-15형은 ICBM급으로서 북한은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로서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2>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화성15형은 북한 주장 정점고도 4475km, 거리 950km를 비행하였으며, 이는 화성-14형 최대정점고도 3,724.9km, 거리 998km에 비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화성-14형의 성능개량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⁵⁾

북극성-2형 미사일은 2017년 5월 콜드발사 방식으로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북극성-1형 미사일이 SLBM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SLBM을 지상발사 탄도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북극성-2형 시험발사 후 “<북극성-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 지상대지상 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의 부대실전배비를 승인하시었다”고 발표하였다.⁶⁶⁾ 이는 사정거리 1200~1300km로서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형 발사대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전에 배치되었던 사정거리 3,000km의 무수단 미사일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면 북극성-2형은 일본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서 노동미사일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모두 이동발사차량(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의해 미사일 배치 기지에서 신속히 발사장소로 이동하

65) “[북한발표 전문], ‘신형 화성-15형 4475km 고동, 950km 비행’, 『중앙일보』, 2017.11.29., <<https://news.joins.com/article/22159651>> (검색일: 2018.11.12.).

66)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련발적 뇌성…탄도탄시험발사를 참관하시었다.” 『로동신문』, 2017.5.22.

여 기습적으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대량의 미사일을 동원하여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이 비록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하여도 북한이 조기경보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상황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이들의 발사 징후를 파악하여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추진연료를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연료 주입을 위한 발사 대기시간이 필요 없다. 즉,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장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고체추진 미사일로 교체하고,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한국의 대응은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다. SLBM 능력

SLBM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에 대한 응징보복을 실시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억제전력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지상 배치 핵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SLBM 능력만을 갖고 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8월 북극성-1형 SLBM의 최초 잠수함 발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극성-1형은 최고 고도 500km, 사거리 500km를 성공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북극성-1형의 시험발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북극성-2형의 지상 시험발사를 통해서 북한의 SLBM 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이후 2017년 8월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극성-3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공개하였다. 김정은의 배경 사진에는 ‘수중 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문구가 표

시되어 있다.⁶⁷⁾ 북한은 북극성-2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에도 미사일 고체연료 엔진에 대한 지상 시험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SLBM을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잠수함은 소련의 골프 급 잠수함을 모델로 하여 1,700톤 급 재래식 디젤추진 고래 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북극성-1형 SLBM 발사 시 선보였다. 그러나 북극성-1형 1발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 급(신포-B 급) 잠수함은 작전에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컨대 신형 SLBM 잠수함 건조를 위한 원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신형잠수함을 탐지하였으며, 이를 신포-C 급으로 명명하였다. 신포 급 잠수함은 전장 11m, 약 2,000톤 급으로 북한이 보유중인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잠수함이 될 것이다.⁶⁸⁾ 북한은 1960년대부터 잠수함과 잠수함 건조기술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여 운용하여 왔다. 비록 SLBM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차이가 있지만 골프 급 소련 잠수함을 원형으로 하고 필요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잠수함을 건조하여 SLBM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SLBM 능력은 북한의 핵 운용전략 및 한미의 대응전략에 많은 차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SLBM 능력은 한미가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고 응징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한미가 북한의 SLBM 기지와 SLBM 배치 상황 등 상세

67) “김정은 시찰 사진에 북 새 미사일 북극성3호 모습 공개돼,” 『뉴시스』, 2017.8.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1894.html> (검색일: 2018.11.12.).

68) Ankit Panda, “The Sinpo-C Class: A Ne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is Under Construction,” *The Diplomat*, October 18, 2017. <<https://thediplomat.com/2017/10/the-sinpo-c-class-a-new-north-korean-ballistic-missile-submarine-is-under-construction/>> (Accessed November 12, 2018); Sebastien Roblin, “Coming Soon: North Korea’s Nukes Could Go Underwater,” *The National Interest*, July 29, 2018.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coming-soon-north-koreas-nukes-could-go-underwater-27106/>> (Accessed November 12, 2018).

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이를 완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면 북한 SLBM에 대한 공포는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기는 어렵다. 정보의 불확실성 가운데 북한이 SLBM 능력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북한은 SLBM에 의해 한미에 대량응징을 위협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한미의 군사작전을 SLBM 능력에 의해 억제하고 강압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이 세계 최고의 수중작전 능력과 최고의 잠수함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SLBM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 전술핵무기

현재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한다는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1950년대에 저폭발력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에 배치하였고, 한국전 시뿐 만 아니라 1950년대 대만해협 위기 시 중국에 대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였으며, 유럽에 이를 배치하여 소련의 재래식 전력 우세를 보완하고자 추구하였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한 열병식에서 ‘핵배낭 부대’를 선보였으며,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이들 부대를 재등장시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능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전술핵무기는 냉전 중 미소 간에 전장에서 전승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전투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하여 운용하였다.

미국은 특수부대원들이 상대국 후방의 지휘통제 시설기반시설 등을 궤멸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핵폭탄인 W-54 SADAM, 소련군의 전격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지프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Davy Crockett, 핵폭탄인 W-82와 W-48을 보유했었다. 현재 미국은 전략폭격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11 전술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량한 B61-12를 생산하여 배치하고자 한다. 이들 핵무기의 폭발력은 0.25kt에서 1-15kt 등 다양하다. 소련은 미국보다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갖고 있었다. 핵가방으로 지칭되는 'RA-115', 저용 핵폭탄, 핵지뢰, 방공용 핵탄두, 핵포탄 등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알렉산더 레베드(Alexander Lebed) 장군은 러시아를 방문한 미 의원단에게 러시아가 1kt짜리 핵가방 84개를 분실했다고 시인했었다. 또한 그는 미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100개 이상의 핵가방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즉각 거부하였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가방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⁶⁹⁾

나랑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은 비대칭 확산전략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대칭 확산전략은 파키스탄 및 프랑스가 선택하고 있는 핵전략으로서 적의 우세한 재래식 군사공격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비대칭적인 확산전략을 통해서 적의 행동을 억제하고 승리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비대칭 확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장에서 핵전투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인 전술핵무기의 개발과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역으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확보한다면 비대칭 확산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행보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건대 전술핵무기를 생산하여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북한과 같은 핵무기에 대한 중앙통제적 지휘통제 체

69) Graham Allison, *Nuclear Terrorism: 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New York: Owl Books, 2004), pp. 43~49.

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지휘통제 권한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이 핵지뢰, 핵기뢰, 핵포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무기 확보를 추구할 것인가는 향후 안보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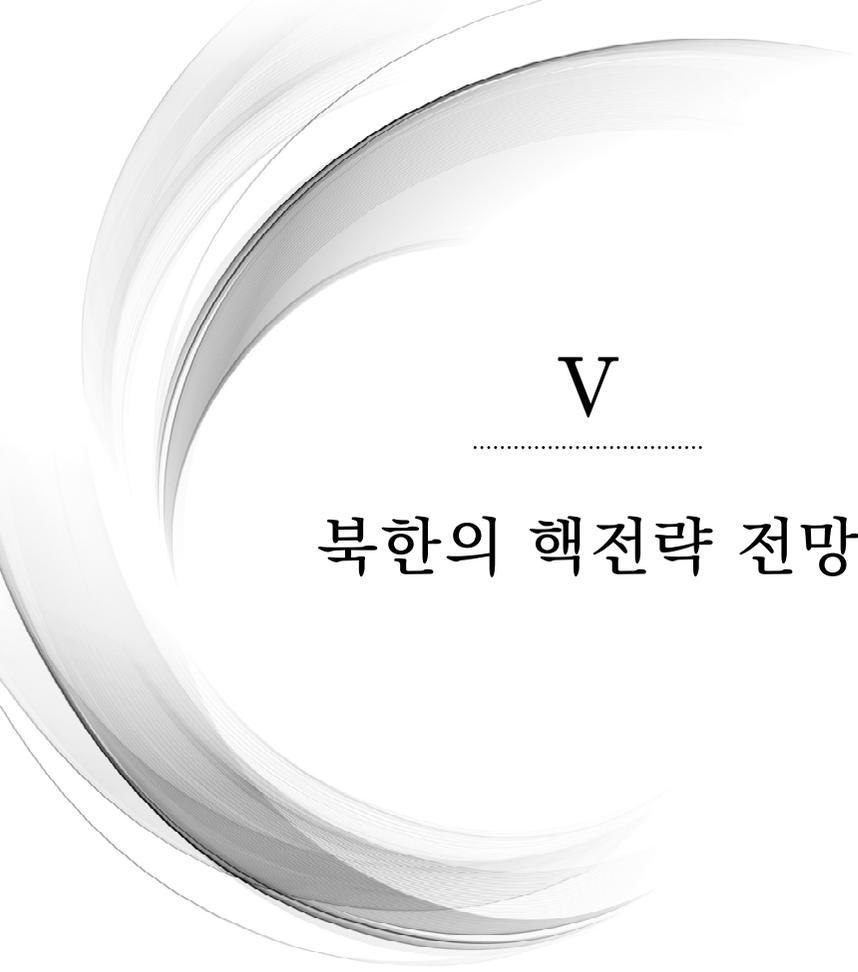
4. 소결

비록 평양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7년과 2018년의 평양시내의 거리모습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두 시기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 요구를 차단하고 사회 통제체제가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국심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노동신문의 논평은 변함이 없다. 북한의 통치이념과 전략도 유사하다. 겉모습은 차이가 나지만 속은 차이가 없다. 선대의 시기와 다른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김정일의 통치이념과 국가전략은 선대의 유지를 이어 받았다.

북한이 처한 안보 및 경제 환경도 북한으로 하여금 쉽게 핵무기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북한의 국가수반이 끌고 가고 있는 점이다. 비록 실무진 간의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탑다운 방식의 협상구조는 비핵화 협상의 동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체제의 통치 이념, 국가전략,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로드맵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이 쌓아온 핵-미사일 능력도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비핵화 과정에는 많은 도전과 장애요소가 있다. 본 장에서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고 안

정을 모색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수적인 비핵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핵무기가 제공하는 정치, 군사적 강점을 가능한 오랫동안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미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V

북한의 핵전략 전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장은 본 연구의 종합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II장에서 V장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된 장들은 아니다. 애초에 연구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다. 하지만 V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들을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사용 옵션 범위를 추정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 가정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고 또 이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사용 옵션을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대부분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본 장의 기본 가정이지만, 본 장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정확한 가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의 소결 부분에 정리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본 장의 첫 번째 절 ‘북한의 핵전략 관련 현황’에서는 북한의 발언에서 핵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북한의 핵전략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예상 경과를 세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 각각의 시나리오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절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비핵화 상황 시나리오 세 가지에 북한의 핵능력 상황 세 가지를 연계하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옵션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북한의 핵전략 관련 현황

가. 핵전략에 대한 북한의 주요 발언

김정은은 2012년 개정 헌법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하면서,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은 김정일의 최고 업적이라고 명시하였다. 2013년 3월에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였고, 그해 4월에는 핵보유국 지위와 관한 법제를 공포하였다. 201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북한은 핵전략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도문은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해 나가며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가야 한다.”⁷⁰⁾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보고 내용을 보면 핵무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핵억제력은...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 정밀화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

7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4.1.

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고 핵무력의 정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핵강국의 존엄과 위력으로 대외활동을 배심있게 벌려 우리 당의 국제권위를 더욱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추동할 수 있는 대외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⁷¹⁾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였다.⁷²⁾

1. 핵무기는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핵무력은 … 침략에 대한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3.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5.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보고와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제에서 찾을 수 있는 북한 핵전략의 지향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4.2.

72) 위의 기사.

북한은 전쟁억제력 및 전쟁수행전략의 핵심수단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핵무기의 파괴력 자체는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는 위협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두려워 했다. 양 국가 모두 가진 상상할 수 없는 핵무기의 파괴력은 오히려 양 국가로 하여금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상대방을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양 국가 간의 평화를 만들어냈다.

북한도 미국이나 남한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을 상대로 벌였던 전쟁을 보며 북한은 자신도 그들 국가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까닭에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쉽게 전쟁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북한이 핵무기를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미국이나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를 전장에서 활용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의지를 꺾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나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면 핵무기를 이용한 나의 방어는 실패하게 된다.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해서 나의 핵무기를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면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의 첨단 정보수집능력과 군사력이더라도 자신의 핵무기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는 방안을 북한은 생각해야 했다. 즉 북한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높여야 했다. 핵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핵무기가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감추면 감출수록 핵무기의 생존성은 높아진다.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SLBM은 북한 핵무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도구다.

김정은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데도 핵무기를 중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핵전략이 성공하려면 나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믿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더라도 나의 공

격 위협을 상대방이 믿어야 방어가 성공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 한국에 비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열세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력까지 합한다면 북한이 한미연합전력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비록 북한이 재래식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또 기습적으로 비대칭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미의 조기경보자산 및 정밀타격 전력, 적극 방위전략을 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북한은 자신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한미의 정보작전과 정밀타격작전이 북한 내 어떠한 혼란을 야기할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전쟁수행전략에 중추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우월한 한미의 군사력 때문이다. 한미의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봉쇄하고 억제하며 무력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운용해야 한다. 적어도 평시에 북한은 자신의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한국과 미국이 믿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이 핵무기 사용 여부를 고민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미의 대응이 불가능하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할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여 주도권을 쥌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은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핵무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핵무기 및 운반수단을 대량생산하겠다는 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이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유는 자신의 핵무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핵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Pu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HEU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

도가 작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20~100기 정도의 핵무기도 대규모의 핵무기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ICBM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SLBM 기술 능력도 갖추고 있다. 적어도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핵전략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은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발언과 북한의 핵보유국 법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보았다. 북한의 핵전략의 기본 방향은 억제다. 핵무기를 보유하려 했던 국가들은 모두 억제가 필요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억제하고자 소련이 핵무장을 했고, 소련의 핵무기를 견제하려 중국이 핵개발을 했다. 이후 인도 파키스탄도 각각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를 억지하기 하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 북한도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핵능력을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만든 법제를 보면 적대적인 핵보유국인 미국과 야합하여 침략이나 군사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단절하라고 한국에게 협박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견해는 분분하다. 더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북한이 억제 이외에도 격퇴 및 섬멸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입장이다. 격퇴는 한미의 군사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여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한 북한은 한미의 정치·군사 중심지역에 대량 보복공격을 하는 전략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미의 전략적 중심지

와 지휘부에 대한 핵공격뿐만 아니라, 대가치 표적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보고와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북한의 핵전략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 전략로켓트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핵억제력’뿐만 아니라 ‘핵선제타격’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3월 이후부터는 핵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정밀 핵선제타격’을 군사교리로 채택하고 이를 위협하고 있다.⁷³⁾ 2016년 7월 스킨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북한은 다음날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타격훈련’이라고 발사 목적을 밝혔다. 노동신문은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이라고 명명한 한반도 지도에 울산 근해의 동해와 부산 앞 해상을 예상 탄착지점으로 표시하였다.⁷⁴⁾ 북한은 2017년 8월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네 발을 동시에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당시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은 미사일의 비행궤도와 거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하였다.⁷⁵⁾ 같은 달 15일 김락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당시 공개된 사진과 지도에는 ‘남조선 작전지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 배치’라고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남한에 네 개의 가로선이, 그리고 일본 남쪽 해상까지 가로선이 그려진 선을 표시함으로써 이 지역이 각기 다른 미사일들의 사정권임을 시사했다.⁷⁶⁾

73) 조동준, “북한 핵교리의 변화와 미중협력,” 전재성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봄플러스, 2015), pp. 252~270.

74) “북, ‘탄도미사일 발사 남 항구·공항 타격용’ 공개한 속셈은,” 『연합뉴스』, 2016. 7. 2 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0/0200000000AKR20160720031900014.HTML>> (검색일: 2018.11.12.).

75) “북, ‘괌 포위사격’ 사거리 100m 단위 예고…정밀도 자신감?” 『연합뉴스』, 2017. 8. 1 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110000014.HTML>> (검색일: 2018.11.1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조선노동당 발표문, 핵관련 법제 및 담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등은 북한의 핵전략 방향을 말해준다. 북한은 억제와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평시 상대방을 강압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핵실험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북한은 억제를 강조하였지만, 점차 강도 높은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보다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 현 핵·미사일 능력에 비추어본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지난 절에서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추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능력으로 어떤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지를 추정하였다. 물론 여기서 추정한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의 핵능력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북한이 자신만의 능력만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첫째, 북한은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제2차 공격능력까지 확보한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대량의 Pu과 HEU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적지 않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다종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KN-2, 스커드-B/C/D/ER, 노동, 무수단, 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을 보유하여 배치하고 있거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약 1,000기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방침에 따라 미사일 숫자를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76) “北, 남한 전역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 설정,” 『조선일보』, 2017.8.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5/2017081500794.html?Dep0=twitter&d=2017081500794> (검색일: 2018.11.12.).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북한은 잠수함(정)과 특수전 부대를 활용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는 계획을 만들 것이다. 한미의 공중우세권 및 공중감시능력을 고려하면 항공기에 의한 핵무기 투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대량의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수단을 활용하여 핵무기를 분산시키고 엄폐화하여 배치하고, SLBM 능력을 갖추므로 한미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하여 제2격 능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북한은 비대칭 확산전략과 제한적 핵무기 운용전략을 고려해 볼 것이다. 전쟁을 하는 국가는 전쟁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종결하려 한다.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북한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아직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지만, 저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는 비대칭 확산 전략의 수단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핵무기 운반수단도 저폭발력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셋째,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은 한미연합작전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이 증원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일종의 동맹분리전략이다. 동맹분리전략은 일본을 위협하여 일본이 미군지원을 포기토록 함으로 미군 증원을 차단하거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위협을 통해서 미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북한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때문에 미사일로 일본을 인질로 삼으려는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은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화성-12형 미사일은 괌과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극복하려면 다량의 화성-12형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15형 능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북한은 국지전에서 다양한 방식의 확전전략을 구사해 한미의 연합행동을 저지하려 할 수 있다. 확전전략에는 수평적 확전, 수직적 확전, 확전통제, 확전우세, 군사적 충돌 완화를 위한 확전전략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확전전략에는 저강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나 핵무기의 대량 파괴능력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 핵무기 사용전략도 있다. 특히, 확전전략은 수사적 위협, 재래식 무기 사용,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이행된다. 현재 북한은 확전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구비했다.

다섯째, 북한은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미의 대응의지를 꺾으려 할 수 있다.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강압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EMP 폭탄을 사용하면 한미의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선제공격에 대응한 한미의 보복공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의 보복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설부른 선제공격은 자신의 종말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지 여부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북한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오직 북한만이 알 수 있다.

2. 북한 핵전략의 정치적 목표

현재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남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무진 간의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북한의 핵능

력과 핵전략은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이다.

북한도 다른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및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국가목표로 삼았다. 김정은은 주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발전 그리고 핵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이후 김정은은 정상국가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로 활동하면서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는 경제와 핵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은 현재의 핵능력을 유지하는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받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겠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신들의 통치이념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힘들게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북한 자신의 힘으로 안보를 지킬 것을 주문한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방위태세와 한미에 대한 억제방안은 북한이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선택지다. 어쩌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은 유사시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자위적인 국방체제를 만들려고 하지만, 남북 간 확대되고 있는 국력격차, 북한의 저조한 경제성장률, 국제적 제재와 압박 속에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자위적 방위력을 갖추고 군사강국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저비용으로 정치적, 군사적, 심리적 등 모든 측면에서 고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핵능력은 선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며 유산이라고 김정은은 말해왔다. 충분한 명분과 실

리가 있어야만 비핵화는 북한 대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소하고 지원과 협력을 받아 경제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어느 국가건 국제사회와 교류 없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실패로 끝난다. 핵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의 강화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암암리에 중국이 지원하지만 않는다면 북한 경제는 파산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경제발전 정책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거나, 경제발전은 포기하고 선대의 유지만을 받드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완성한 핵능력은 가급적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원도 받든 것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생존전략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목표와 핵전략은 현재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따른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살펴보았다. 세 가지 상황에는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여 북한이 비핵 국가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비핵화 된 북한을 상대로 그들의 핵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임할 수 있다. 첫째,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합의하고 이행절차를 밟으나, 은밀하게 소량의 핵무기와 최소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은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즉 이스라엘과 같이 공식적으로는 비핵국가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황을 만들려는 전략이다. 둘째, 북한은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추구하여 전환기 동안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상당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하

게 된다. 셋째, 비핵화 협상은 결렬되고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핵능력을 확보하고 운용하는 전략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의한 대북제재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가. 비핵화 상황 시나리오 1: 적은 숫자의 핵무기를 비밀리에 보유할 경우의 정치적 목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북한이 암암리에 적은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은밀하게 감춘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선언하면서도 핵능력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편에서는 모든 핵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핵무기를 비밀리에 보유하면 핵무기의 효용성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가 북한의 핵위협을 공갈협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핵무기 사용위협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하면서, 완벽하게 핵무기가 없다는 확신은 주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핵전략을 운용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미에 대량파괴능력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억제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완전하게 핵무기를 포기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둘째, 북한은 촉매적 핵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남한과의 국지전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북한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하여 중국이나 미국을 개입하게 만들 수 있다.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이나 중국은 남한에게 양보를 강요하여 확전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를 강압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은 수의 핵무기일지라도 이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상대방 심리를 압박할 수 있다.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간접효과가 있다. 북한은 이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는 내부를 향한 정치적 측면도 있다. 핵보유국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한 것을 최고의 업적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사기증진 및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다.

나. 비핵화 상황 시나리오 2: 상당수준의 핵무기를 상당기간 동안 보유할 경우의 정치적 목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이 장기화되고 일정 또한 불투명해질 경우 북한이 품을 수 있는 정치적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형태의 비핵화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포기할 조건이나 이유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단계적인 비핵화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이 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해소하고 경제

를 위한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비핵화 과정이 길어지면 북한에겐 이점이 있다. 비핵화 요구에 응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나마 긴 시간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북한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비핵화를 하면서 그들의 핵능력은 긴 시간 동안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더 늘리려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장기적 비핵화 전략을 선호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의 조치들을 대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연계시킬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끝게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며, 북한은 이러한 변수들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핵물질 및 핵·미사일 생산 시설, 핵무기 폐기 및 감축,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및 감축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핵은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핵능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앞의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다른 시나리오 2가 갖는 차이점은 북한이 가시적인 자신의 핵능력을 대내외에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1에서 북한의 전략은 자신의 핵능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반면에 시나리오 2에서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장기간에 걸쳐 드러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핵능력을 활용한 정치적 효과는 시나리오 2에서 보다 높을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2에서 북한은 핵능력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통일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 2에서 북한은 비핵화 과정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핵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은 비핵화 추진 의지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2에서 북한은 핵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옵션 대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대량파괴능력을 기반으로 한 억제전략, 전면전에서의 비대칭 확산전략과 제한적 핵무기 운용전략, 동맹분리전략, 국지전에서의 확산전략, 강압적 활용전략 등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드러내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나리오 1에서처럼 방어목적의 억제전략과 강압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1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촉매 확산전략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다. 비핵화 상황 시나리오 3: 비핵화 협상 결렬로 최대의 핵능력을 보유할 경우의 정치적 목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협상결렬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고립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이 겪어야 할 정치·경제적 고통 수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지만, 두 국가의 지원이 확실하지도 않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북한의 안보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핵실험을 할 당시의 안보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북한은 되돌아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은 다시 국지도발

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 위협과 함께 국지도발을 하여 상대방의 소극적 대응이나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만일 미중 경쟁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대남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지원이 있다면 한미에게 양보를 강요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3에서 북한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핵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은 마치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하는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핵전략도 억제전략을 넘어 비대칭 확전전략과 제한적 핵무기 운용전략, 동맹분리전략, 국지전에서의 확전전략, 강압적 활용전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하면서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군사도발이다.

3.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주요 쟁점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관련해서 네 가지의 주요 쟁점이 있다. 이 쟁점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앞의 절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별로 쟁점을 풀어보았다.

첫 번째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이 억제전략인지 아니면 전쟁승리전략이나 통일전략인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기

본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 억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상대방에게 나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억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가 억제용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시나리오 1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은 억제일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는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암묵적으로 핵무기를 감추어야 하기에, 드러내놓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언급자체는 비핵화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된다.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암묵적인 억제를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핵전략은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유사하다. 실제적인 사용보다는 잠재력을 내비치는 억제전략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지만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한미가 인식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억제력을 갖게 된다.

시나리오 2에서 보여주는 비핵화 상황에서는 북한이 억제전략 외에 제한적으로 핵능력을 사용하는 핵전략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한적으로 핵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기를 조성하나 그 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일으켜 핵능력을 작간접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행동을 북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위기를 조성하면서 특정 선을 넘어 비핵화 협상 과정이 깨지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다.

비핵화 상황 시나리오 3에서 북한은 억제전략을 넘어 전쟁승리전략, 통일전략을 선택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

되고 대내외적인 안보 여건마저 악화된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핵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방안은 군사강국 위상을 과시할 수 있고, 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으며, 대외적인 위협을 고조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3에서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군사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제2격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여 운용하며, 한미를 위협할 수 있는 EMP 폭탄을 개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쟁점은 북한이 동맹분리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다. 북한의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남한을 도와주면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위협과, 반대로 미국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는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협박도 가능하게 만든다.

만일 시나리오 1의 상황이라면 북한은 동맹분리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 2에서는 비핵화 이행조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건에 따라 동맹분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시나리오 2의 상황에서 동맹분리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오히려 시나리오 3의 상황에서 북한은 동맹분리전략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경우건 북한은 한국에 대한 군사우위를 지켜 대남 억제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성대국의 위상과 대남 우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선 대남 억제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고 비핵화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핵전략을 강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거나 비핵화 협상을 믿지 못하게 되면, 북한은 동맹분리전략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북한으로 하여금 동맹분리전략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은 북한이 확전우세 전략과 확전통제 전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전략은 핵능력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여 한미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전략이다. 확전통제 전략은 제한적인 핵사용을 통해 협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즉 핵능력을 바탕으로 한미가 확전이나 전면전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반면에 확전우세 전략은 말 그대로 확전이 되었을 경우 내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전략이다.

시나리오 1과 2의 상황에서 북한은 확전통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협상 타결과 이행으로 조성한 유리한 정치·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은 전면전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3의 상황에서 북한은 확전우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협상 결렬로 초래된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새로운 안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분쟁을 기회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은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걸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따라서 확전우세 전략을 통해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을 파고 들 수 있다. 확전우세 전략은 현상변경을 위한 전략, 승리를 위한 전략, 위협감수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이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위협감수 전략의 하나로 선택되고 강화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은 평시 및 위기시 강압전략의 활용 여부다. 확전은 강압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핵무기는 보유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다. 지금까지 발표하거나 흘렸던 위협이나 협박, 그리고 핵무기 활용 전략으로 북한은 이미 강압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평시 및 위기사 강압전략은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1, 2, 3의 모든 상황에서 북한은 사용하려 할 수 있다. 단, 시나리오 1의 경우는 시나리오 2, 3의 경우보다 간접적인 강압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강압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나리오 3일 것이다.

4.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세 가지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을 다르게 상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비핵화 조치도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나 북한은 잠재적 또는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제한적 핵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2는 북한 비핵화 이행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이 상당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하는 상황이다. 핵능력 시나리오 3은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어 북한이 가능한 최고의 핵능력을 보유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능력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운용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종류별로 상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종류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덟 개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았다.

- 분쟁 시나리오 1 : 북한이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상에서 중저강도 군사도발을 실시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

- 분쟁 시나리오 2 : 북한이 군사분계선 상에서 중저강도 군사도발을 실시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
- 분쟁 시나리오 3 : 북한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위협(예, 개성공단 등)하는 도발을 실시한 경우.
- 분쟁 시나리오 4 : 북한이 서북도서를 점령하고자 시도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개시한 경우.
- 분쟁 시나리오 5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 군사공격을 실시한 경우.
- 분쟁 시나리오 6 : 북한이 선제적, 기습적 전면전 도발을 통해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수도권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 경우.
- 분쟁 시나리오 7 : 전면전 상황에서 한국군의 군사분계선 이북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에게 확전과 응징을 위협하는 경우.
- 분쟁 시나리오 8 : 북한 내 유사사태가 발생하여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미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고자 군사공격을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북한의 핵무기 운용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확전전략을 체계화한 칸은 전쟁과 위기의 확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위기 발생 및 폭력 발생 이전의 상징적·시위적 행동단계(Subcrisis maneuvering), 테러의 균형상황에서 전통적인 위기 발생 단계(Traditional crises), 생각할 수 없었던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고강도 위기단계(intense crises), 제한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특이한 위기(Bizarre crises), 시위용으로 중심지 공격단계(Exemplary central attacks), 새로운 형태의 대군사 표적에 대한 전면전(Military central wars), 대

가치 표적에 대한 전면전(Violation of the No-City threshold) 7개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핵무기 운용전략이 선택되고 이행된다.⁷⁷⁾

칸은 확산단계를 44개의 확산 사다리로 설명하고 있다. 확산 사다리는 정치외교적인 메시지·위협·공갈, 군사력 동원·시위·기동, 재래식 군사력의 시위·기동·연습, 재래식 군사력의 제한적·대규모 사용, 분쟁지역의 확대, 핵사용에 대한 구두 위협, 우발적인 핵무기 사용, 핵무기 시위·기동·연습, 핵전쟁 최후 통첩, 핵무기의 시범적 사용,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 핵무기에 의한 대군사 표적 공격, 핵무기에 의한 대가치 표적 공격 등 다양한 분쟁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칸은 정책결정자가 분쟁상황에 따라 핵무기 사용 전략을 세분화하여 확산을 통제하거나 확산 우세전략을 선택한다고 본다.⁷⁸⁾

본 연구는 칸의 확산 사다리를 참고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하는 옵션을 14가지로 분류하였다.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 : 구두위협(최고 사령관, 전략사령관 등)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2 : 탄도미사일 발사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3 : 핵무기 장비의 정비 및 과시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4 : 핵관련 부대들의 기동·연습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5 : 핵실험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6 : 공해상 EMP 사용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7 : 대도시 또는 주요 항만 등에 대한
EMP 사용

77) Herman Kahn,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12), pp. 31~51.

78) *Ibid.*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8 : EMP 사용 지휘통제 체계 마비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9 : 핵무기의 전술적, 군사적 사용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0 : 핵무기에 의한 테러 공격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1 : 핵전쟁 최후 통첩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2 : 핵무기에 의한 제한적 대군사 표적 공격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3 : 핵무기에 의한 제한적 대자산 표적 공격
-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4 : 핵무기에 의한 제한적 대도시 표적 공격

위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 14개는 북한이 억제전략, 강압전략, 전쟁승리전략, 통일전략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옵션을 보여준다. 칸은 확전 사다리를 통해 핵무기를 외교적 행동, 재래식 무기 등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운용하는 옵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도 재래식 무기, 외교적 수단 등과 함께 핵무기 사용 옵션을 세분화하여 확전을 관리·통제, 우세를 추구하는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운용옵션을 고를 때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군사적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목표,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운용 옵션을 상호 연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전략을 검토하였다. 다음 표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옵션을 시나리오 별로 보여준다.

〈표 V-1〉 북한의 핵전략과 핵무기 운용옵션

구분	정치군사적 목표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	핵무기 운용옵션
비핵화 시나리오 1: 핵잠재력 및 매우 제한적 핵능력	· 체제 생존 및 안전 보장 · 강성대국 위상 과시 · 경제발전 여건 조성 · 방어적 억제 및 강압 전략	분쟁 시나리오 1, 2 (NLL 및 군사분계 선 중저강도 분쟁)	핵무기 운용옵션 1, 2, 3, 4 (구두 위협, 미사일 발 사, 핵능력 시위)
비핵화 시나리오 2: 상당수준의 핵능력	· 체제 생존 및 안전 보장 · 강성대국 위상 과시 · 경제발전 여건 조성 · 방어적 억제 및 강압 전략 · 소극적인 전쟁승리 전략, 통일전략	분쟁 시나리오 1, 2, 3, 4 (NLL 및 군사분계 선 중저강도 분쟁,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위협, NLL 고강도 분쟁)	핵무기 운용옵션 1, 2, 3, 4, 5, 6 (구두위협, 미사일 발사, 핵능력 시위, EMP 사용)
비핵화 시나리오 3: 대규모 핵능력	· 생존 및 안전보장 · 강성대국 위상 과시 · 국제적 제재와 압박 극복 · 공세적인 억제와 강압전략 · 적극적인 전쟁승리 전략, 통일전략	분쟁시나리오 1~8 (모든 가능한 분쟁 상황)	핵무기 운용옵션 1~13 (모든 가능한 핵무기 운용 옵션)

출처: 저자 작성

가. 북한 비핵화 및 핵능력 시나리오 1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

북한의 비핵화 및 핵능력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평가할 경우 북한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상황 시나리오 1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비핵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비록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감추고는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암묵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를 맞게 되면 북한은 체제생존에 대한 걱정을 덜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가 있다. 북한은 비핵화로 만들어진 동력을 경제발전으로 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잠재적 핵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을 활용할 것이다. 만일 한국 및 주변국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은 잠재된 핵능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강압을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1의 상황에서 북한은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보다는 체제생존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시나리오 1에서 예상 가능한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는 분쟁 시나리오 1과 2가 상정하는 NLL 및 군사분계선 상에서 북한이 중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이다. 비핵화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강도가 센 도발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NLL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NLL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강도의 도발을 주기적으로 지속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상에서도 분쟁 이슈가 있을 경우 중저강도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로 인해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할 것이다.

분쟁시나리오 1과 2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옵션은 1에서 4까지다. 즉 구두위협, 미사일 발사, 핵무기 장비의 정비 및 과시, 핵관련 부대들의 기동 연습 등이다. 자신의 잠재적 핵능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방법으로 한미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북한은 강성대국임을 과시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독려할 것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외부정보의 확산으로 체제에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면 북한은 내부를 통제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잠재적 핵능력을 등에 업은 핵전략은 핵무기를 가시적으로 사용하는 핵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나. 북한 비핵화 및 핵능력 시나리오 2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핵화 시나리오 2는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비핵화 조치 이행과정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이 상당수준의 핵능력을 장시간에 걸쳐 유지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일정 수준 지속되고 있는 까닭에 북한에 대한 지원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의 정치·군사적 목표는 체제 생존 및 안전 보장, 강성대국 위상 과시, 경제발전 여건 조성, 방어적 억제 및 강압전략, 소극적인 전쟁승리 전략 및 통일전략의 추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핵전략 목표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하나 시나리오 2에서 북한은 소극적인 전쟁승리 전략 및 통일전략을 유지하여 비핵화 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소극적인 전쟁승리 전략 및 통일전략의 의미는 북한이 핵능력을 통해서 분쟁과 위기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를 돌파하고자 하는 호전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급적 안정적인 대내외적인 안보여건을 유지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개념인 전쟁승리전략과 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안보적 불확실성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목표인 전쟁승리전략과 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여 정권에 대한 정통성과 강성대국 위상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요구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반도 분쟁 시나리오는 분쟁 시나리오 1, 2, 3, 4가 될 것이다. 즉, NLL 및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중저강도 분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 NLL에서의 고강도 분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은 개성공단에 대한 통제 강화 및 한국민 납치 등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비핵화 및 핵능력 시나리오 1과의 차이점은 북한이 NLL에서 고강도 군사도발을 자행할 수 있으며, 한국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을 실시하는 것이다. NLL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대외적 관계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NLL에서의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상황을 전환하고자 할 수 있다. NLL 도발과 관련한 빌미를 한국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고강도 도발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여 한국에게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상황에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전략은 전략 옵션 1, 2, 3, 4, 5, 6이 될 것이다. 주요한 전략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구두위협, 미사일 발사, 핵무기와 장비의 정비기동연습 등 핵능력 시위, 핵실험, 공해상 EMP 사용이 있다. 핵능력을 보다 가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핵위기로 확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산하여 도발을 실시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을 확실하게 과시하여 미국과 중국 등의 개입을 압박하는 촉매적 핵전략을 이용할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확증보복 태세를 상당한 수준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여 한미를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즉, 나라의 핵전략 개념인 촉매적 핵태세와 확증보복 태세를 동시에 전략으로 유지하는 개념이다. 핵실험 및 공해상 EMP 사용은 이러한 전략의 중요한 행동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여건을 유지하는 것과 전쟁승리전략 및 통일전략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인 핵전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안보적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비록 확증보복 태세를 유지하지만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구축한 유리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핵무기 운용에 신중할 것이다. 많은 운용옵션 가운데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옵션은 피하려 할 것이다.

다. 북한 비핵화 및 핵능력 시나리오 3에서의 핵무기 운용전략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 및 핵능력 시나리오 3은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어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북한은 대규모의 핵능력을 보유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전략의 정치·군사적 목표는 생존 및 안전 보장, 강성대국 위상 과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극복, 공세적인 억제와 강압전략, 적극적인 전쟁승리 전략 및 통일전략이 될 것이다.

시나리오 2와의 차이점은 시나리오 3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비핵화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어려움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악화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핵능력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공세적인 억제 및 강압전략, 적극적 전쟁승리 전략 및 통일전략을 선택하여 한미를 압박하는 한편 내부도 통제하려 들 것이다. 군사도발을 통해 핵위기를 조성하여 한미의 행동을 억제하고 강압하려 할 것이다.

시나리오 3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반도 분쟁시나리오는 모

든 시나리오를 다 포함한다. 북한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전환하려고 군사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저강도 도발에서 고강도 도발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하여 전쟁의 위협성을 높이는 협박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무기 운용전략 옵션은 1에서 14까지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목적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핵전쟁의 위협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대칭 확산전략을 포함하여, 인질전략 그리고 전쟁승리전략 등을 고려할 것이다.

5. 소결

본 장 각각의 절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북한이 어떠한 운용전략들을 사용할지를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전략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북한의 핵사용 위협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상수로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은 틀린 가정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위협을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위협을 믿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이나 소련은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보복공격을 당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상대방의 보복공격은 공멸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소련은 핵무기가 없는 상대방에게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비록 핵시대 초기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사용하긴 했지만, 미국이나 소련을 상대로 도발할 한 비핵국가에게 미소는 핵무기로 보복을 하지 않았다. 당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미소의 핵무기는 서로를 향한 억지를 위한 무기 이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믿음은 제2차 핵시대라고 불리는 현시대에 와서 무너졌다. 핵무기를 갖게 된 지역 국가들은 예전 미국이나 소련과는 달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랑(Narang)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9·11사태다. 9·11사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경험이었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9·11은 위협이 위협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다. 의심의 대상은 테러리스트를 넘어 핵을 보유하게 된 지역 국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이들 국가들은 비합리적인 결정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비용 대비 이득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렸다면, 새로 핵무장을 한 지역 국가들의 결정에는 민족주의와 같은 감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역 핵국가들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처럼 지역 핵국가들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판단은 지역 핵국가들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간과하였다. 이는 테러리스트가 갖는 완전파괴 불가능성을 지역 핵국가가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테러는 테러를 당한 국가의 보복으로 자신들의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테러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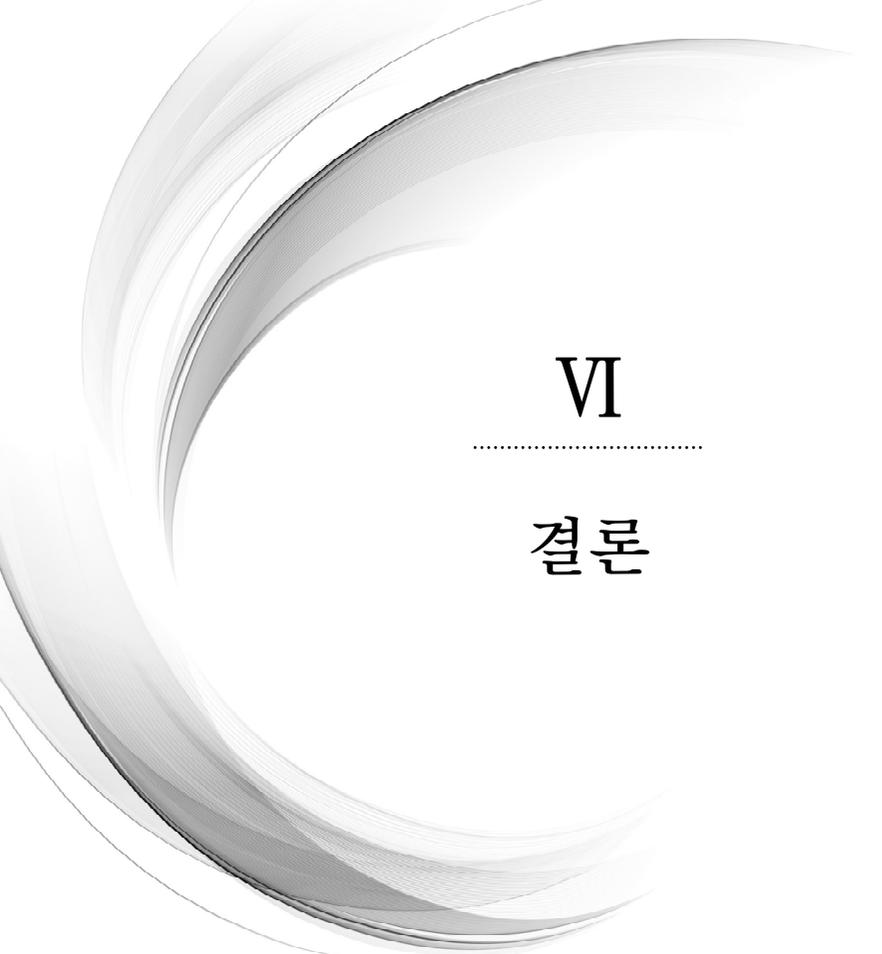
한 번에 격퇴하기 어렵다. 그래서 테러조직은 조직이 사라진다는 우려 없이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핵국가는 다르다. 지역 핵국가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자신의 파멸도 감수해야 한다. 지역 핵국가로부터 핵공격을 당한 핵강대국이 눈감아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아무리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지역 핵국가라고 할지라도 쉽게 핵공격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다.

강대국을 비롯하여 중견국, 그리고 약소국 어느 국가건 자신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하였고 또 존재하는 국가는 여기서 예외가 없다. 핵무기가 역사에 등장한 이후 핵강대국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런데 지역 핵국가가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핵강대국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지역 핵국가는 핵강대국보다 더 앞뒤를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핵국가가 핵강대국을 상대로 테러리스트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비록 본 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였다. 어쩌면 본 장의 분석과 같이 북한은 핵을 사용하는 전략을 만들어 놓았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가 된다. 북한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북한은 먼저 도발을 한 경우에도 사태가 확산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행동을 보여 왔다.⁷⁹⁾ 북한은 자신이 비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보이길 원했을 뿐이다. 핵무기 사용여부 결정에도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79)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4호 (2016), pp. 83~114.



VI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 공세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를 비롯하여 마일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 정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북한은 이러 저러한 핵 운용전략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 운용전략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실제 운용 가능성 여부는 차기 연구 주제로 남겨두었다.

실제 운용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는 데 기준으로 삼았던 조건들과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약소국의 핵전략을 다룬 이론들, 북한의 통치이념 및 국가전략, 군사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절대적 능력, 핵전략 관련 북한의 발언 및 법제 등을 북한의 핵 운용전략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과 진행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고 북한이 어떠한 핵 운용전략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즉 북한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핵 운용옵션들을 살펴보았다.

과거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억지를 다룬 이론들은 상대적인 핵능력으로 억지를 설명했다. 상대방과 나의 핵능력을 비교하여 억지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을 벌였던 이유도 상대방보다 유리한 상대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⁸⁰⁾ 미국에 비해 핵능력 수준이 열세일 당시 소련은 미국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준만큼의 핵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미국에게 확실한 보복공격의 의지를 보여줄

80) 상대적 핵능력에 바탕한 억지이론은 다음을 참조: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40~50.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의 상대적 능력이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소국의 핵전략을 연구하는 근래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인 핵능력이 서로를 억지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핵전략 자체가 상대방의 억지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나랑이다. 나랑은 비대칭 확전전략의 성공여부는 핵능력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의 공개적인 표현이라고 보았다.⁸¹⁾ 나랑에 의하면 우월한 적국을 억제하기 위한 약소국의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보았다. 나랑은 이러한 위협이 억제를 성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⁸²⁾

나랑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약소국이 실제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약소국이 위협으로 강대국을 억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강대국을 향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북한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앞에서 살펴본 북한 핵전략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전략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는 있어도, 핵능력이나 재래식 능력이 월등한 상대방에게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파멸할 수도 있는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강대국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차이가 균등하다면 약소국은 싸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력 차이가 비대칭적으로 기울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전력차이가 균등하면 싸움에

81)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19~20.

82) *Ibid.*, p. 34~36.

서 이길 가능성은 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력차이를 없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고, 그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과 한국의 전력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미국의 개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이 선택하기 불가능한 결정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무기의 상대적 능력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차기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전쟁이전에 만들어진 전략은 전쟁기간동안 군사작전의 범위와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⁸³⁾ 본 연구는 북한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핵 운용전략 및 옵션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작전 범위와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83) Barry R. Posen,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31.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2017.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7.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11.
-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Allison, Graham. *Nuclear Terrorism: 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New York: Owl Books, 2004.
- Bennett, Bruce W.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Threat*.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0.
- Brad, Robert.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 Bracken, Paul. *The Second Nuclear Age: Strategy, Danger, and the New Power Polit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12.
- Kahn, Herman.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12.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osen, Barry R.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2. 논문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1호, 2017.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73권 0호, 2015.

조동준.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이전 소련과 중국의 핵교리.” 전제성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봄, 2015.

_____. “북한 핵교리의 변화와 미중협력.” 전제성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봄플러스, 2015.

탁성한. “북한 군사비 추계 연구: 2014년-2018년.” 박창권 외. 『2017 안보전략 전문과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7.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4호, 2016.

Albright, Davi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SIS Report*, April 28, 2017.

_____. “On the Question of Another North Korean Centrifuge Plan and the Suspect Kangsong Plan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May 25, 2018.

_____.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February 26, 2015.

- Arreguin-Toft, Ivan.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Summer, 2001.
- Colby, Elbridge. "Russia's Evolving Nuclear Doctrine and its Implication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016.
- Hecker, Sigfried S. "What WE Really Know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What We Don't Yet Know for Sure." *Foreign Affairs*. December 4, 2017.
- _____. Chaim Braun, and Chris Lawrence, "North Korea's Stockpiles of Fissile Material." *Korea Observer*. Volume 47, No. 4, Winter 2016.
- Kristensen, Hans M. and Robert S. Norris.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2018."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8.
- Lieber, Keir A. and Press, Daryl G. "Preventing Escalation During Conventional Wars."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PASCC*. Report No. 2015-XXX, February 2015.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ume 38, Issue 1, Spring 2015.
- Panda, Ankit. "The Sinpo-C Class: A Ne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is Under Construction." *The Diplomat*. October 18, 2017.
- Roblin, Sebastien. "Coming Soon: North Korea's Nukes Could Go Underwater." *The National Interest*. July 29, 2018.
- Zhebin, Alexander. "A Polit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Moltz, James Cla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1.

3. 기타자료

『뉴시스』.

『로동신문』.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News1』.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Committee on Rules(House of Representatives). <<http://rules.house.gov>>.

World Food Program. <www1.wfp.org>.

Bennett, Bruce W. "Potential Nuclear Impact on Korean Conflict."
RAND, 한국국방연구원 워크숍 발표, December, 2013.

Narang, Vipin. and Panda Ankit. *Command and Control in North Korea: What a Nuclear Launch Might Look Like*, War On Rocks, September 15, 2017. <<http://warontherocks.com>>.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근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영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현승수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욱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핵전략 분석

